경남교육 2023-174

아이좋아 경남교육
2023.09 Vol.80

최고의 투수를 꿈꾸다

▲ 마산용마고 야구부 장현석 선수

여전히 여름에
머물러 있는 듯하지만
제법 가벼워진 바람이 느껴지는
9월의 초입입니다.

무성하게 초록이
자라나던 날들을 지나
곡식이 알알이 익어가는
가을이 우리 앞에 도착했네요.

하지만 가을 햇볕 아래
자라나는 건
곡식뿐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튼튼하게 자라나기를
어느새 선선해진 바람에
마음을 실어 보냅니다.

아이좋아 경남교육은 오른쪽 페이지 상단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는 보이스 아이(VOICE EYE)를 삽입했습니다.

www.gnedu.kr

CONTENTS

Vol.80 2023년 9월 호

발행일
2023년 9월 1일
발행인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발행처
경상남도교육청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
Tel. 055-278-1784
편집인
홍보담당관 이종섭
기획총괄
홍보담당사무관 전영부·주무관 채선영·김아경
기획·취재·편집·인쇄
경상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주)큰그림

경남교육, 미래를 만나다

04 특집 기획
이달의 경남교육 주요 정책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08 요즘 아이, 별별 꿈
마산용마고등학교
야구부 장현석 선수

12 경남교육가족을 만나다
상봉소소리마을배움터
마을교사 백은숙

16 학교 변신은 무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천용남고등학교

20 열정을 만나는 시간
할머니와 나의
사계절 요리학교

경남교육, 재미를 만나다

24 방구석 전시관
26 경남교육캘린더

28 힐링필링 경남교육명소
가을이 오면
독서하러 떠나야지

32 즐겁지 아니한家
우리가 목소리를 모을 때
함안 합창 가족

36 우리말 돋보기
38 학교폭력 예방 웹툰

경남교육, 정보를 만나다

40 진로진학 나침판
42 숫자로 보는 경남교육
44 경남교육뉴스
46 의정소식
48 도정소식
50 독자기고
51 독자퀴즈

도움 경남미래교육원 하호용 연구사 **사진** 백동민

특집 기획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생각을 담고 배움을 즐기고 미래를 그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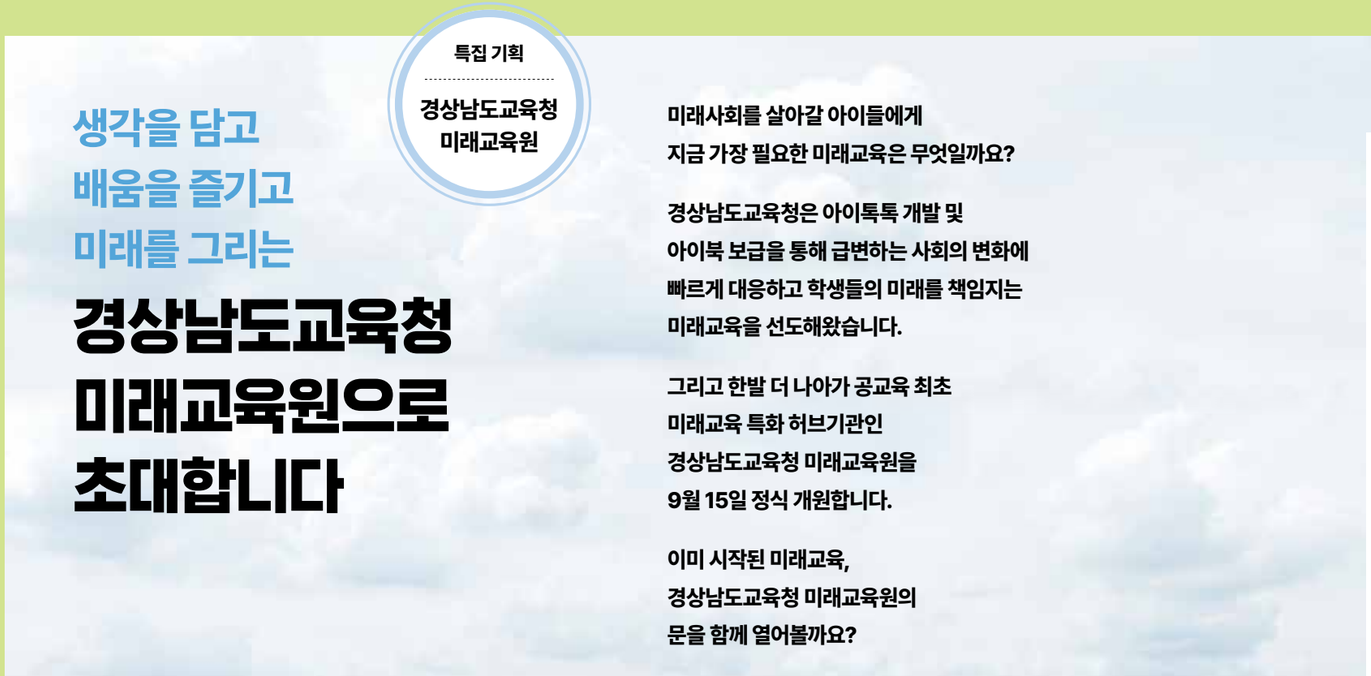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으로 초대합니다

미래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미래교육은 무엇일까요?

경상남도교육청은 아이톡톡 개발 및
아이북 보급을 통해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미래교육을 선도해왔습니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공교육 최초
미래교육 특화 허브기관인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을
9월 15일 정식 개원합니다.

이미 시작된 미래교육,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의
문을 함께 열어볼까요?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8길 12-33 (의령읍 서동리 757번지)
문의 055-570-5544
누리집 https://gnfe.gne.go.kr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의 공간을 소개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은 미래의 가치를 담는 세 개의 에듀볼(체험그릇, 상상그릇, 공감그릇)을 형상화한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학생 체험이 주로 이루어지는 '체험그릇' 공간은 어떤 모습일까요?

체험으로 배워요!

체험그릇

1층 • 체험누리 전시 콘텐츠

(창의융합 놀이터 / 디지로그 모험터 / 미래교육 나눔터)

〈체험그릇〉 1층은 학년 관계 없이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 요소를 놀이로 체험하는 공간입니다. 먼저 **'창의융합놀이터'**는 에듀테크(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한 교육 서비스)를 기반으로 건강, 예술, 수학 교과의 원리를 신체 활동과 동반해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9개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놀며 배우는 공간. 벌써부터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창의융합놀이터 9개 콘텐츠

① 찾아라! 최적경로 ② 어쩌다 뮤지션 ③ 내맘대로 골드버그 ④ 모아스포츠
⑤ 푸시업 스피드업 ⑥ 포즈챌린지 ⑦ 환상의 덩크슛 ⑧ 점핑터치
⑨ 디지털 클라이밍

포즈챌린지

점핑터치

모아스포츠

환상의 덩크슛

‘디지로그 모험터’는 미션형 체험으로 4-6명 학생이 그룹이 되어 미래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협업으로 해결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주제에 따라 ‘미래해양연구소’와 ‘미래비밀요원’으로 나뉘며 각 프로그램 별로 준비된 체험 공간을 통과하며 미션을 해결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미래해양연구소’는 해수면 상승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단한 코딩, 게임, 신체 활동이 이뤄집니다. 과연 아이들은 어떻게 미션을 해결해나갈까요?

‘미래교육 나눔터’는 미래학습실, 미래나눔월, 미래AI실, 미래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이곳에서 미래형 학습 도구 실습, 미래교육 콘텐츠 체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디지로그 모험터 ①

디지로그 모험터 ②

디지로그 모험터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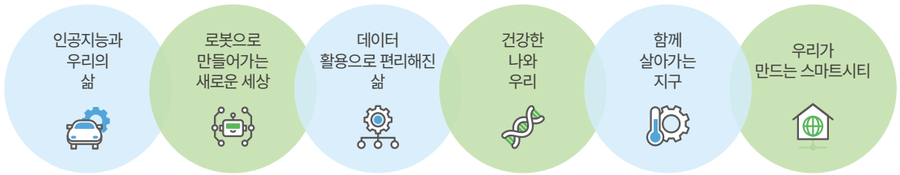
디지로그 모험터 ④

3층 나래터 나래마루

미래교육 배움터

2~3층 • 배움누리 체험 프로그램 미래교육 배움터 / 공작터 / 쉼터 / 나래터 / 나래마루

1층이 놀이를 기반으로 미래 역량을 키워나가는 공간이라면, 2,3층에 마련된 ‘미래교육 배움터’에서는 미래인재 양성을 돕는 수준별 수업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특히 ‘미래교육 배움터’는 벌집구조, 직방구조, 자율 변화구조의 총 3가지 공간 혁신모델이 적용된 34개 교실이 마련되어 있어 공간이 주는 창의성과 프로그램의 확장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학생 수준 진단을 통해 총 30종(6개 주제, 5단계 레벨) 수업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주제	인공지능	로봇과 사람	생활 혁신	건강	기후 환경	공간 혁신
교구	자율주행자동차	로보마스터	빅데이터, 아두이노	레고	마이크로비트	3D모델링
비고	1~5레벨	1~5레벨	1~5레벨	1~5레벨	1~5레벨	1~5레벨

* 야외공간에는 대형 실물 교구가 갖춰진 ‘꿈꾸는 놀이터’가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상상해요!
상상그릇

1층 • 자율주행트랙존 / 카페 쉼터 / 연수실 **2층 • 미래상상홀(100석)**

〈상상그릇〉은 미래형 교육과정 연구 및 확산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연구실과 자율주행 트랙존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누고 공감해요!
공감그릇

1~2층 • 미래공감홀(550석)

〈공감그릇〉은 미래교육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공간으로 교사 연수, 미래 교육 컨퍼런스 등이 이루어집니다.

미래교육원 체험 프로그램 참여 안내

학기 중에는 학교별 사전 신청에 따라 주중 학교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주말에는 경남도내 가족·지역민·타시도 방문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체험 신청과 문의는 대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학교 체험 프로그램(초4~고3)

체험누리
- **창의융합 놀이터** 9개 콘텐츠
- **디지로그 모험터** 2개 테마(15개 체험)
- **미래교육나눔터** 4개 공간(12개 콘텐츠)
- **야외 놀이터** 대형콘텐츠 4종

배움누리
- **배움누리 프로그램 체험(체험그릇 2~3층)**
  - 인공지능과 우리의 삶 외 5개 주제

연계체험
- **의령 지역 체험 프로그램**
  - 지역체험장(23곳), 먹거리(20곳)

특별 체험 프로그램

주말체험
- **대상(도내 외 학생 및 가족)**
- **숙박 연계 및 의령지역체험 가능**
- **체험누리 전시 콘텐츠 및 배움터 체험 프로그램**

방학체험
- **대상(신청 학생 500명)**
- **미래교육 심화 프로젝트(여름·겨울 방학)**

기타체험
- **고교학점제 연계**
- **동아리와 연계**
- **AI 인재양성미래학교 등**

학교 체험 운영시간 안내

9:30~10:30	10:30-11:30	11:30-12:30	12:30-13:30	13:30-14:30	14:30-15:30
미래교육원 체험			점심(의령 먹거리)	의령 지역 연계 체험	
의령지역 연계 체험(10시30분 시작)		점심(의령 먹거리)	미래교육원 체험		

● 체험 A ● 체험 B

• 체험A와 B의 최대 수용 인원은 각 544명 입니다.

경남을 넘어 세계로!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마산용마고 야구부 장현석 선수

글 김달님 사진 백동민

KOR 경상남도교육청 www.gne.go.kr

1936년 마산공립보통학교 시절부터 야구부가 존재했던 마산용마고등학교는 긴 역사와 야구 명문고라는 명성에 걸맞게 여러 유명 선수들과 야구인을 양성했다.

최근 고교 야구 최대어로 불리며 주목받는 장현석 선수도 마산용마고 야구부 소속이다. 154km/h 강속구, 아마추어 선수 최초로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선발된 주인공. 유망주로 꼽히는 일이 부담스럽진 않은지 묻는 질문에 장현석 선수는 다부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부담감을 느끼기보다는 자신이 올라선 자리를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오늘 경기보다 다음 경기가 더욱 기대되는 선수, 장현석 선수를 만나기 위해 마산용마고등학교 야구부 훈련 현장을 찾아가보았다.

Q 장현석 선수는 어떻게 야구를 시작하게 되었나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동네 형들과 마산 야구장에 NC 다이노스 경기를 보러 간 적이 있어요. 선수들 출근 시간에 맞춰서 사인을 받으려고 기다리는데, 이호준 코치님(전 야구선수·현 LG 트윈스 코치)의 차량을 발견하고 1등으로 뛰어갔죠. 그런데 제가 차에 너무 가까이 붙는 바람에 후진하는 차량 바퀴에 발이 밟힌 거예요. 그때는 다친 줄도 모르고 신이 나서 '사인해주세요!'라고 했는데, 놀란 코치님께서 병원에 데려가 주셨죠. 그런데 어린애가 울지도 않고 덤덤한 모습이 인상 깊었는지 '너 야구 해볼래?'라고 하시더라고요. (웃음) 그때의 우연한 사고와 코치님 말 한마디가 야구를 시작한 결정적 계기가 되었어요.

Q 야구를 하게 될 운명이었나봐요. 장현석 선수가 주인공인 드라마를 만든다면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함안리틀야구부와 경주중학교를 거쳐 마산용마고로 진학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었지만, 용마고 야구부 진민수 감독님을 믿고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감독님 운이 좋은 편이거든요. 늘 좋은 감독님을 만나왔고, 지금도 덕분에 용마고 야구부 선수로서 자부심을 가지며 성장해나가고 있습니다.

Q 장현석 선수는 156km/h라는 빠른 구속으로 주목받고 있죠. 타고난 재능도 있겠지만 그만큼 많은 노력이 뒷받침된 결과겠죠?

스승님들께서 저한테 '네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안다'라고 말씀해주실 만큼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야구부 훈련 외에도 제 기량을 높일 수 있는 부분 부분을 디테일하게 파고드는 편인데요. 예를 들어 웨이트는 어떻게 해야 하고, 컨디셔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구속을 끌어올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엔 웨이트 훈련과 피칭 훈련에 몰두했던 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Q 장현석 선수가 생각하는 좋은 투수란 무엇인가요?

투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멘털이라고 생각해요. 마운드 위의 투수가 자기 공을 믿지 못하면 경기를 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투수는 강한 멘털로 동료 선수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투수입니다.

Q 그럼에도 매 경기 마운드에 오를 때마다 긴장이 될 것 같아요. 스스로 마음을 다잡는 방법이 있나요?

네. 사실 그 긴장감은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마음을 다잡는 저만의 방법이 있는데요.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다음 숫자를 1, 2, 3까지 세는 겁니다. 그러면 떨리는 마음도 진정이 되고 진지하게 경기에 임할 수 있습니다.

Q 최근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무엇인가요?

지난 4월에 열린 신세계이마트배 고교야구대회에서 세광고와 붙었던 16강 경기요. 작년에 저희에게 패배를 안겼던 팀이라 동료들의 각오가 남다르기도 했고, 결과적으로 이겨서 8강에도 진출했기 때문에 특별히 기억에 남습니다.

Q 광저우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고등학교 투수가 선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소감이 궁금해요.

사실 처음에는 안 될 거라고 예상하고 포기하고 있었는데요. 학교에서 점심 먹고 있는데 감독님께서 학교에서 축하한다고 소식을 전해주셔서 정말 깜짝 놀라고 소름 돋았어요. 저에게 어떤 역할을 맡겨주시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선 자리를 제대로 책임져 보겠습니다.

Q 선수로서 최종 목표가 있나요?

제 롤모델은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투수 다르빗슈 유 선수예요. 짧은 투구 폼에서 강한 공을 던질 수 있고, 한 팀의 에이스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모습이 감동적이에요. 그처럼 메이저리그 제1 투수가 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제 이름을 기억해주세요.

Q 마산용마고 야구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마산용마고 야구부의 장점은 선수들이 각자 맡은 역할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여름에 훈련하느라 다들 힘들고 지치겠지만, 남은 경기는 지난 이마트배 대회 때처럼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 내보고 싶습니다. 마산용마고 야구부 파이팅!

2023항저우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에 이어 최근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들려왔다. 장현석 선수의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이 확정된 것이다. 야구 선수로서 최종 목표는 메이저리그 제 1투수라고 말했던 자신의 꿈에 한걸음 더 다가간 것이다. "꿈은 이루어진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선 매순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수. 장현적 선수의 내일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www.gnedu.kr 경상남도교육청

조흥규 담임선생님이 말하는 장현석 선수

제가 지켜본 현석이는 한마디로 운동에 '진심'인 학생입니다. 야구선수로서 타고난 재능도 크지만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향한 열정이 크고 그만큼 노력도 정말 많이 하는 학생이에요. 그리고 운동부 학생들은 아무래도 학업에 집중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 현석이는 수행평가든, 학교생활이든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친구들과 교우 관계도 좋은 편이고요. 제가 담임을 맡은 학생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개무량합니다. 아무래도 현석이가 부담감이 클 텐데 잘 해낼 거라 믿고요.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메이저리그 1군 경기에서 현석이 얼굴을 꼭 보고 싶습니다.

진주행복교육지구 상봉소소리마을배움터
백은숙 마을교사

배움이 학교를 넘어서 마을로

‘행복교육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협력하여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경상남도교육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이다. 2017년 김해시를 시작으로 2022년부터 경남 전체 시·군이 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다. 그중 오늘 우리가 만나볼 사례는 진주행복교육지구 한편을 환하게 밝혀주는 ‘상봉소소리마을배움터’다. 마을 안에서 아이들의 꿈이 우뚝 솟아나길 바라며 ‘온 마을이 학교다’라는 가치를 따뜻하게 실현하고 있는 배움터. ‘상봉소소리마을배움터’ 마을교사 백은숙 씨를 만나보았다.

글 김달님 **사진** 백동민

엄마들의 진심에서 시작된 마을배움터

진주 상봉소소리마을배움터는 2020년 엄마들의 자발적인 모임에서 시작되었다. 노인 인구 비율이 높고 아이들을 위한 문화시설이 부족한 상봉동에서 아이를 키우는 7명의 엄마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공부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그 중 한 명이 바로 마을교사 백은숙 씨다. 20년 가까이 아이쿱생협에서 활동가로 일한 그는 동료 엄마들과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자 했다. 마침 행복교육지구인 진주는 마을학교*를 꾸리기 좋은 환경이었다.

“학교 밖 마을에서도 아이들이 배우고 놀고 자랄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를 만드는 것에 엄마들도 동의를 했고, 2021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마을학교 운영을 시작했어요.”

시범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2022년에는 진주행복교육지구 지역중심마을학교 공모사업에 선정돼 ‘상봉소소리 마을학교’ 운영을 시작했다. 소소리는 높이 우뚝 솟은 모양을 나타내는 순우리말로 마을을 상징하는 비봉산처럼 아이들의 꿈도 높이 우뚝 솟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상봉소소리 마을학교’는 잘 놀아야 잘 큰다는 주제로 아이들과 숲체험, 전통놀이, 협동놀이, 환경 체험 등을 함께하며 1년을 보냈다. 덕분에 아이들이 전보다 마을을 친숙하게 느끼고 학교 밖에서도 다양한 배움을 경험할 수 있었다. 2023년에는 상봉동주민자치회가 주축이 되어 지역형 마을배움터 공모사업에 도전했다. 마을 안에서 교육공동체를 더욱 확장하기 위함이었다.

“올해부터는 상봉동주민자치회 주민소통교육분과에서 마을배움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주민자치회가 주축이 된 사례는 소소리가 유일해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마을배움터 취지와도 아주 잘 맞죠. 덕분에 상봉옹달샘*을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기도 용이하고, 엄마들의 모임으로 시작해 우리 힘으로 확대해나가는 점이 뿌듯하기도 하고요.”

01

***마을학교**

가까운 우리 마을에 배움터를 만들어 이웃 어른에게 우리 마을 아이들이 마을에 대해 배우는 곳. 우리 마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다른 동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이웃에 함께 사는 어른이다. 어른들은 우리 마을 아이들을 위해 뭘 할지 고민하고 아이들은 자기 마을을 사랑하는 어른으로 자라나는 온전한 교육공동체가 바로 마을학교다.

***상봉옹달샘**

상봉동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2019년 경남형 생활SOC 주민자치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기존 상봉동 현장민원실로 사용되던 별동 건물을 1층은 주민사랑방·공동육아방으로, 2층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실·초등돌봄교실 등으로 재구조화했다.

02

01 마을 누각 비봉루에서 다도 수업을 듣고 있는 아이들
02 마을 특산품인 산딸기를 직접 수확해본다

발길 닿는 곳이 교실
만나는 어른이 선생님

상봉소소리마을학교는 올해 두 가지의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한다. 하나는 매주 토요일 진행하는 '우리 동네의 숨결을 찾아서'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아이들과 동네를 탐방하며 동네의 환경과 역사를 알아가는 프로그램이다. 아이들의 발길이 닿는 곳은 살아있는 교실이 되고, 동네 어른들은 기꺼이 선생님이 되어준다.

"상봉동은 육십 프로 이상이 논밭이에요. 복숭아 과수원도 많고 전국에서 산딸기를 가장 먼저 재배한 곳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모르는 아이들이 훨씬 많죠. 얼마 전 아이들과 복숭아 과수원을 방문해 직접 수확도 해보고 농사짓는 분께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더니 아이들이 정말 신기해했어요. 그 외에도 동네 문인 선생님과 서예 체험을 하거나 비봉루 누각에서 다도를 배우고, 40년 넘게 운영 중인 자전거 가게 사장님께 동네 이야기를 듣기도 했어요. 내가 사는 동네가 언제든 가장 가깝고 즐거운 학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03

04

05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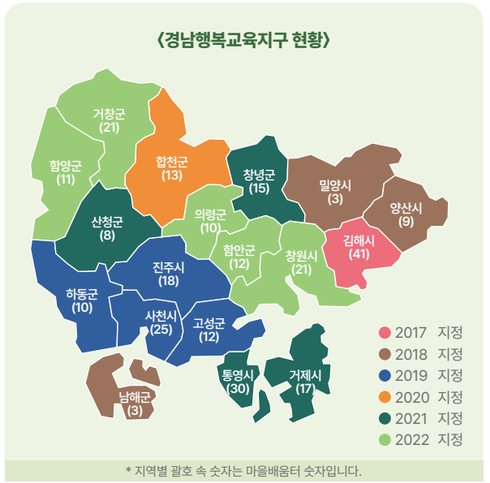
03 옹달샘에 모인 소소리마을배움터 아이들
04 백은숙 마을교사
05-06 요리조리 놀이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

그리고 화요일 저녁에 문을 여는 '요리조리 놀이터'도 있다. 돌봄 공백이 있는 한부모 가정 또는 조손 가정 아이들 15명과 상봉옹달샘 조리실에 모여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수업이다.

"상봉동은 조손 가정 비율이 높은 편이라 아이들에게 맛있는 한 끼를 먹이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한 것이기도 해요. 요리에 가장 자신 있는 엄마가 선생님이 돼서 요리뿐 아니라 식생활 교육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 수업은 항상 인기가 좋아서 아이들이 늘 다음 수업은 언제인지 물어봐요."

마을에서 잘 자란 아이가
마을을 돌보는 어른이 된다

최근 6월과 7월에는 마을교사가 상봉동에 있는 봉원중학교를 방문해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봉원중학교가 올해 '마을과 함께하는 운동장 생태공원 조성학교'로 지정되면서 학교와 마을 간에 적극적인 교류가 필요해진 것이다.



MINI INTERVIEW

Q. 상봉소소리마을배움터를 자랑해주세요!

조수아(12세) 마을배움터에 가면 학교에서 하지 않는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지난 번에 비봉루에서 다도 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 새로운 경험이라 너무 신기했고, 차와 다식의 맛이 좋아서 기억에 남아요.

박서연(10세) 복숭아 농부아저씨께서 우리 동네 복숭아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복숭아를 넣어 만든 샌드위치가 너무 맛있었어요. 토요일은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라 심심한 적이 많았는데 마을배움터에 가면 심심하지 않아서 좋아요.

"학교 밖이 아닌 교실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과 마을에 대해 공부하면서 어떤 생태운동장을 만들고 싶은지 고민하는 시간이 굉장히 뜻깊었어요. 마을배움터의 취지도 결국은 아이들의 배움이 학교와 마을에서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요."

상봉소소리마을배움터는 꿈꾼다. 더 많은 아이들에게 마을의 따뜻한 품을 내어줄 수 있기를. 마을 안에서 더 다양한 배움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그래서 마을교사 백은숙 씨는 오늘도 동료 엄마이자 교사들과 응원의 마음을 나눈다. 아이들을 위한 일이니까, 힘닿는데 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해보자고.

"아이들이 마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곳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마을에서 키운 아이가 어른이 돼서도 이 마을을 떠나지 않고, 어릴 때 자신이 경험했던 어른들의 돌봄과 배움을 아이들에게 돌려주기를 꿈꾸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은 저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고요. 마을 주민 한 분 한 분이 함께 해주시는 게 상봉소소리마을배움터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봉소소리마을터로 모여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글 임승주 **도움말** 경남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 김동욱 장학사 **사진** 백동민

경남교육의 미래학교 모델

공간을 새롭게 내일을 이롭게

떠다니는 학교 사천용남고등학교

경상남도교육청은 공간과 수업을 변화시키기 위해 공간혁신사업과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학교단위 공간혁신 공모사업'으로 시작해 최근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완성된 사천용남고등학교가 바로 그곳!

'수(水)공간' 위로 물에 떠 있는 듯한 건물, 올록볼록 불규칙하게 튀어나온 교실, 공간마다 펼쳐진 초록 테라스….

'학교'하면 으레 떠오르는 네모반듯한 건축물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개성을 빛내는 학교 외관이 다르고, 수업이 다르고, 미래가 다른 사천용남고등학교에 다녀왔다.

✦ 차별점 하나. 외관이 다르다

뙤약볕을 뚫고 학교에 도착하자 호수처럼 펼쳐진 '수공간'이 먼저 시원하게 반긴다. 고개를 들고 보니 학교 외관부터 남다르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용남고등학교 새 교사는 네모반듯 정형화된 기존 학교와는 분명 첫인상부터 다르다. 통유리가 많아 건물 안쪽 계단과 도서관 등이 훤히 보인다. '열린 학교'라는 인상이 먼저 든다. 용남고등학교 변화의 시작이 궁금했다.

신현숙 교감 "10년 전쯤 바로 옆 용남중학교의 학생 수가 너무 줄어서 고민이 많았어요. 한 학년에 두 학급도 안 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죠. '어떻게 하면 학교를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시작했던 것이 '아이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것이었고, 그 결과 카페형 교무실, 학생생활공간 채움뜰, 복합교육공간 지혜샘 등을 만들었어요. 결과요? 지금은 학생이 많아서 걱정인 학교가 되었죠."

용남중학교 사례와 더불어 2019년 교육부로부터 '학교단위 공간혁신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힘을 얻은 용남고 교육 가족들은 그때부터 머리를 맞댔다. 회의부터 워크숍까지 수십 차례 논의의 장을 열고 '어떤 학교, 어떤 교실을 만들까?' 치열하면서도 즐거운 고민을 이어갔다. 신현숙 교감은 "선생님들 모두 달나라라도 세우겠단 기세로 학교공간 혁신을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 차별점 둘. 수업이 다르다

가장 염두에 둔 점은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 또 한 가지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서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 결과 폴딩 도어와 이동식 가벽 등으로 크기를 바꿀 수 있는 교실,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연결된 중앙 도서관, 테라스, 홈베이스, 전자칠판 등이 갖춰졌다. '학생의 행복'과 '새로운 수업'이라

01

는 목적과 기능에 충실했다는 점에서 인테리어, 그 이상의 멋과 힘이 느껴졌다.

공간의 변화는 학생들의 일상도 바꿨다. 용남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 시범학교로, 2학년부터 학생들에게 수업 선택권을 주고 있다. 학생들은 조·종례는 각자 정해진 반에서 갖지만, 수업 종이 울리면 각자 해당 수업이 이뤄지는 교실로 찾아간다. 책과 소지품은 '홈베이스'라 부르는 사물함 구역에 넣어두고 다닌다. 쉬는 시간에는 푹신한 소파나 테라스를 찾아간다. "미드(미국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것 같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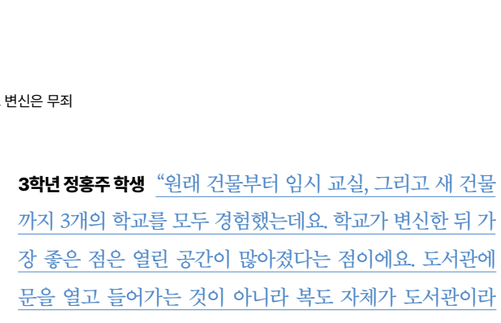
2학년 박신혜 학생 "변신한 학교를 본 순간 넷플릭스에서 보던 하이틴 드라마 속 학교 같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저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던 학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니까요. 특히 홈베이스에 있는 사물함이나,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이동 수업이 많다는 점이 이색적인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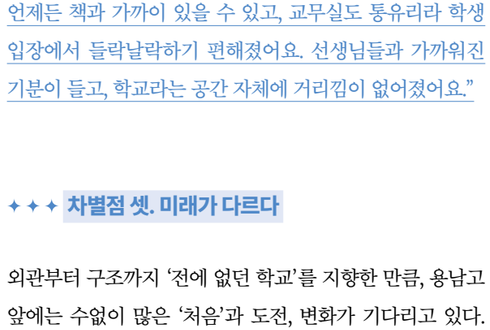
요즘 용남고등학교 학생들은 이동식 가벽을 열어 2개 이상 과목을 연계한 융합 프로젝트 수업을 하기도 하고, 과학 클러스터에서 스케일이 다른 실험을 하기도 한다. 전자칠판과 스마트 단말기를 활용한 쌍방향 수업도 일상이 되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학생들이 오고 싶은 학교'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학생 간에는 물론 학생과 교사 간 소통도 늘어났다는 점이다.

3학년 정홍주 학생 "원래 건물부터 임시 교실, 그리고 새 건물까지 3개의 학교를 모두 경험했는데요. 학교가 변신한 뒤 가장 좋은 점은 열린 공간이 많아졌다는 점이에요. 도서관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도 자체가 도서관이라 언제든 책과 가까이 있을 수 있고, 교무실도 통유리라 학생 입장에서 들락날락하기 편해졌어요. 선생님들과 가까워진 기분이 들고, 학교라는 공간 자체에 거리낌이 없어졌어요."

✦✦✦ 차별점 셋. 미래가 다르다

외관부터 구조까지 '전에 없던 학교'를 지향한 만큼, 용남고 앞에는 수없이 많은 '처음'과 도전,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 일례로 새 교사 완공 후 클러스터별로 떨어진 교실을 1시간마다 이동하며 찾아가다 보니 시간적,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 때문에 2시간씩 이어서 수업하는 '블록타임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다행히 학생들의 반응도 좋고, 과정 중심 평가에도 용이한 수업 방식이라는 것이 신현숙 교감의 설명이다. 용남고등학교는 앞으로 내부 정비를 거쳐 학교 내 수공간과 산책길, 소규모 공연장과 카페테리아 등을 지역사회에 개방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용남중학교에 미래교육관이 완공되면 지금보다 더 미래교육의 장을 넓힐 수 있을 거란 기대감도 갖고 있다.


02


03

04

신현숙 교감 "스스로 일찍 등교해서 도서관을 먼저 찾고, 프로젝트 수업에서 수준 높은 토론을 나누는 학생들 모습이 귀감이 된다는 분들도 많았고요. 저희 학교가 가진 공간적 장점을 바탕으로 앞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활동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경상남도교육청은 오는 2025년까지 총 140개 학교, 190동 건물을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추진한다. 경남교육청이 추구하는 미래학교는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해 만들고, 정형화되고 구획화된 공간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호기심을 이끌어내는 '뻔하지 않은 학교, 볼수록 궁금해지는 학교'다. 앞으로 펼쳐질 상상을 체험하는 공간으로 미래학교 탄생이 기대된다.

Q. 그린스마트미래학교란 무엇인가요?

미래교육을 향한 경남교육 대전환 핵심 프로젝트로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 건물을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 경남 기준 2021~2025년 총 140개 학교, 190동 건물 대상
- 연도별로 2021년(40개 학교 55동), 2022년(25개 학교 35동), 2023년(25개 학교 33동), 2024년(29개 학교 38동), 2025년(21개 학교 29동)

Q.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의 변화 원칙은 무엇인가요?

교육혁신, 공간혁신, 그린학교, 스마트교실, 학교복합화, 노후시설 개선, 안전 등 7가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학교 구성원이 직접 청사진을 구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에너지 자립학교, 미래교육 플랫폼 중심의 스마트학교, 지역 상생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학교 등 지역별·학교별 특색 있는 미래형 학교로 변신 중입니다.

Q. 변신을 마친 학교는 어디 어디인가요?

2023년 9월 기준 의령고, 양산고, 사천용남고, 하동 화개중, 거제 외포초, 양산 화제초가 있습니다.

(*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전신인 학교단위공간혁신 시범사업 학교임)

01 대학 캠퍼스 분위기의 용남고 복도
02 전자칠판를 이용해 수업 중인 교실
03 3학년 학생들의 홈베이스 공간
04 모든 공간마다 테라스가 딸려 있는 용남고

글 김달님 사진 백동민

세상에는 이런 학교도 있다. 할머니가 선생님, 손녀가 학생이 되어 요리와 인생을 배우는 '할머니와 나의 사계절 요리 학교'. 그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부엌과 들판이 교실이 되고, 할머니의 손맛과 경험이 가장 좋은 교과서가 된다. 수업 준비물은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제철 재료. 시험과 성적표 대신 하루 세끼 함께 만들어 먹는 식사가 두 사람의 매일을 따뜻하고 풍성하게 채운다. 여름이 지나가고 새로운 계절과 학기를 준비 중인 임홍순 할머니와 예하 작가를 만나러 진주로 향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 똑 닮은 두 사람이 밝게 웃으며 맞아주었다.

할머니의 요리와 인생을 배우고 싶어 입학했습니다

〈할머니와 나의 사계절 요리학교〉 예하·임홍순 작가

대학 진학 대신 선택한 나만의 학교

임홍순 할머니는 진주에서 30년 동안 떡집을 운영했다. 얼마나 맛있었는지 떡집 건물을 빙빙 휘감을 정도로 손님이 많았다. 매일 고소한 냄새와 훈기 도는 떡집 한편에 할머니의 부지런한 삶을 지켜보던 작은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가 바로 예하 작가다. 어떠한 연유로 태어난 지 한 달 된 손녀를 키우게 된 할머니는 서울에서 진주까지 차를 타고 오는 여덟 시간 동안 한 번도 품에서 손녀를 놓지 않았다. 차가 흔들리면 작은 아기가 놀랄까 싶어서였다. 그렇게 할머니 곁으로 온 아이는 할머니가 입에 넣어주는 음식과 사랑으로 무럭무럭 자랐다. 그 사랑을 기억하는 손녀는 여덟 살에 서울로 돌아간 후에도 방학마다 진주로 내려왔고, 스물두 살이 되자 함께 살겠다고 짐 가방을 챙겨 왔다. 이유는 하나. 할머니의 요리를 배워보고 싶다는 거였다.

임홍순 할머니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여기 와서 무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예하가 하는 걸 보니 요리뿐만 아니라 모든 걸 완벽하게 잘해서 이제는 걱정이 안 돼요."

할머니 눈에 모든 것이 완벽한 손녀. 예하 작가가 요리 학교에 입학한 나이는 스물둘이다. 그가 또래 청년들이 보편적으로 선택하는 대학 진학 대신 자칭 '할머니의 요리학교'에 입학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예하 작가 "저는 대안학교를 다녔는데 그 학교에서도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은 유일한 학생이었어요.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대학은 내가 필요할 때 가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죠.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학력과 커리어를 쌓으며 경쟁하는 것보다는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싶었어요. 그게 저에게는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일이었고, 제가 사랑하는 할머니의 삶과, 자연스러운 요리인 채식 요리를 하나로 이어보고 싶었어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요리학교의 하루하루

학교의 하루하루는 계절과 함께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옥상 텃밭과 산과 들, 가까운 시장에서 구해 오는 제철 채소가 음식의 주 재료이기 때문이다. 지금이 맘때 가장 맛있는 제철 음식을 만드는 하루 세끼는 매번 실전 수업이다.

01

66

스스로 채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는데
할머니와 지내면서 비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99

02

03

요리 과정에서 배운 것과 실패한 것, 할머니와 나눈 대화도 적어두었다. 더불어 예하 작가는 개인 SNS에 음식 이야기를 직접 촬영한 사진과 함께 공유한다. 어느새 600여 개의 게시물이 쌓인 인스타그램의 팔로워는 현재 7만 명이 넘는다.

예하 작가 "많은 분들이 어머니와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편안하게 느끼시더라고요. 그 그리움을 채워드릴 수 있어서 좋고, 덕분에 채식을 시작했다는 반응을 볼 때는 기뻐요. 가끔 어떤 댓글은 할머니께 읽어드리는데 감동에 눈물짓곤 하세요."

사계절 요리학교에서 보내는 두 번째 가을

예하 작가 "오늘은 이 재료로 어떤 요리를 만들어볼지 할머니와 항상 궁리해요. 지난 5월에는 아카시아 꽃으로 튀김을 만들었어요. 아카시아는 매년 그맘때만 볼 수 있어서 입에 넣으면 계절을 입에 머금는 기분이 들어요. 또 요리를 하다 보면 할머니의 편견 없는 시선에 자주 놀라는데요. 예를 들면 간장을 베이스로 한 샐러드 양념을 만드는 과정에서 할머니께서 간을 보시더니 청국장과 청양고추를 넣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조합이었는데 먹어보니 정말 맛있어서 놀랐어요."

예하 작가에게는 '요리일기장'이라 이름 붙인 두꺼운 노트 두 권이 있다. 지난 1년간 할머니와 함께 만든 모든 요리 과정을 기록한 노트이다. 완성 레시피뿐 아니라 새롭게 알게 된 재료의 특성이나 지난 7월, 두 사람이 함께 보낸 요리 학교의 1년을 담은 책 <할머니와 나의 사계절 요리학교>(수오서재, 2023)가 출간됐다. 출간 소감을 묻자 쑥스러워하는 할머니 곁에서 예하 작가가 슬쩍 알려주었다. 한동안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 자랑을 많이 하셨다고.

임홍순 할머니 "아주 꿈같지요. 열심히 살고 보니까 이런 날이 있구나 싶어요."

예하 작가 "책을 엮고 나니 요리학교 1학기가 마무리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다른 것도 해보라며 책이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아요. 다음 학기는 어떻게 흘러갈지 정한 것은 없지만 시장에서 만나는 할머니들의 이야기도 담고 싶고, 언젠가는 제가 선생님이 되어 그동안 배운 것을 다양한 형태로 전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예하 작가는 요리뿐 아니라 할머니에게 배운 인생의 소중한 지혜를 나눠주었다.

예하 작가 "스스로 채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는데 할머니와 지내면서 비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요리로 설명하자면 10만 원짜리 트러플 소금이 아니라 10년 묵은 기본 소금으로도 값진 요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 지혜를 잊지 않고 살고 싶어요."

유독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다가왔다. '할머니와 나의 사계절 요리학교'에서 맞는 두 번째 가을은 또 어떤 음식과 이야기로 채워질까. 곡식이 익어가는 계절, 임홍순 할머니와 예하 작가가 나누는 사랑도 여전히 따뜻하고 풍요로울 것이다.

04

05

01 두 사람의 부엌이자 교실
02 책 〈할머니와 나의 사계절 요리학교〉
03 할머니와 손녀는 서로에게 가장 친한 친구다
04 재철 야채를 넣어 만든 전과 수박주스
05 두 사람은 매일 이렇게 함께 요리를 만든다

할머니의 요리학교에서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추천하는 힘나는 음식 세 가지

따뜻한 콩물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콩물을 먹으면 몸도 마음도 든든해진다.
따뜻한 콩물의 매력을 느껴보기를.

- 재료 백태, 물, 소금
- 방법 ① 콩이 충분히 불어나도록 5시간 이상 불린다
② 끓는 물에 불린 콩을 넣은 다음, 한 번 끓어오르면 콩을 건진다
③ 최대한 곱게 갈아 살짝 식었을 때 소금을 넣는다
④ 취향에 따라 땅콩, 콩가루를 곁들여 따뜻하게 먹는다

무나물

가을 무는 산삼보다 좋다는 말이 있다. 기관지에도 좋고
사계절 중 가장 맛이 좋을 때이니, 충분히 챙겨 먹기를.

- 재료 가을 무, 콩나물, 양파, 볶은 참깨, 쪽파 약간, 소금, 물
- 방법 ① 채 썬 무와 양파, 콩나물을 냄비에 넣는다
② 아래쪽이 자작하게 잠길 정도로 물을 넣은 후 소금을 뿌린다
③ 뚜껑을 닫고 중약불로 10분 정도 끓인 뒤 불을 끄고 살짝 뜸들인다
④ 마무리에 송송 썬 쪽파와 볶은 참깨를 뿌려 마무리한다

무말랭이만두(책에 없는 특급 레시피)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예하와 무얼 먹고 싶냐는 질문에 홍순씨가 만두라는 대답을 했다. 그만큼 온갖 사랑이 쏟아진 메뉴가 만두다.
선명한 사랑과 응원이라는 뜻이다.

- 재료 생만두피, 무말랭이, 두부, 양파, 김치, 들기름, 볶은 깨, 소금, 후추
- 방법 ① 무말랭이를 물에 불린 후 다져준다
② 두부는 살짝 데친 후 으깨어 면포에 짜준다
③ 들기름에 다진 양파와 김치를 함께 볶아준다
④ 1,2,3번을 한데 넣은 다음 들기름, 볶은 깨, 소금, 후추로 밑간을 한다
⑤ 만두피를 얇게 밀어준 후 만두를 빚어 10분 정도 쪄준다

마음의 색채가 풍부해지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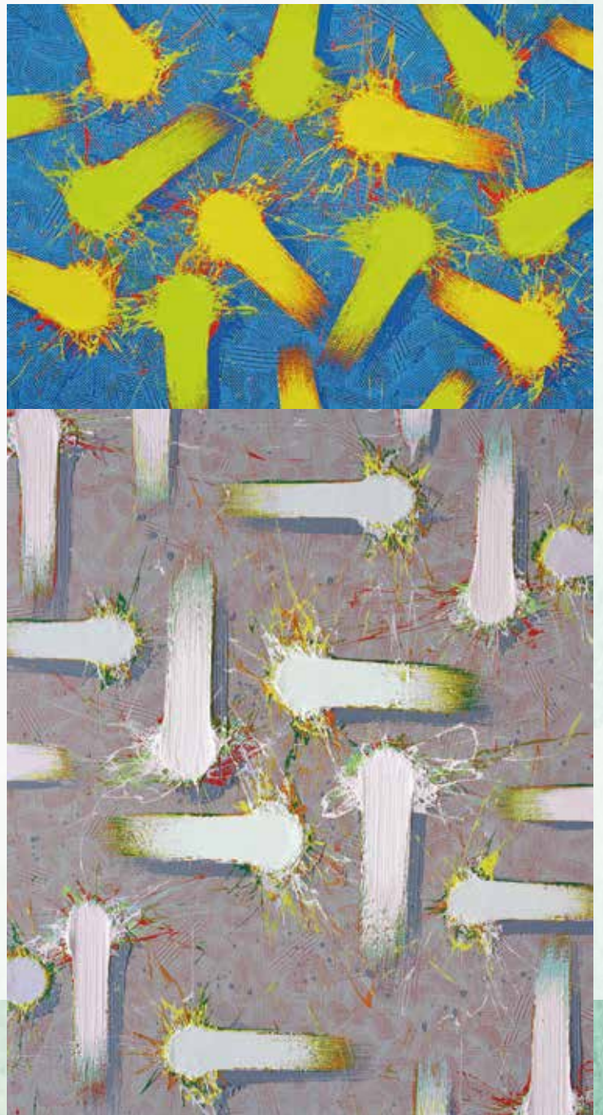
강태웅 작가, 김옥숙 작가 회화 전시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입니다. 흔히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죠. 독서가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일이라면 미술 전시 관람은 마음의 색채를 풍부하게 만드는 일 아닐까요? 세상을 다채롭게 물들이는 가을처럼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회화 전시를 만나는 시간. 강태웅 작가와 김옥숙 작가 두 작가의 초대전을 소개합니다.

강태웅 작가 초대전 : 비상飛翔 Flying Up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은 서로 간섭하며,
모든 것은 생명이라는 이름 하나로 모여든다.
이 세상에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명으로 모여듦'이라는
절실한 움직임일 것이다.
- 강태웅, 작가 노트, 2022

경상남도교육청은 9월 4일부터 18일까지 제2청사 갤러리 및 본청 복도(2층, 4층)에서 강태웅 작가의 초대전을 개최한다. 현 중앙대학교 미술학부 교수이자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강태웅 작가는 '자연을 통한 인간성 회복'이라는 주제로 중층구조의 화면과 반복되는 붓질을 그대로 드러내며 내면과 외면, 음과 양의 조화, 자연과의 소통을 추구해왔다. 전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s://gn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옥숙 작가 초대 개인전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은 8월부터 9월까지 우리 지역 예술가인 김옥숙 작가의 작품을 전시한다. 소호 김옥숙은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전통 화선지를 겹쳐 만든 장지(壯紙)에 표현하는 한국화가이다. 작가는 무수히 많은 붓질로 매 순간 변하는 자연의 한 장면을 그려 생명의 흐름을 담아낸다.

김옥숙 작가가 그린 수국과 작약, 모란, 백련은 근거리에서 자세히 들여다본 듯 세밀하면서도 묵직한 색채를 뿜어내고, 곤충과 새들은 금방이라도 움직일 듯 살아있는 생동감을 보여준다. 자연의 일순간을 담은 김옥숙 작가의 작품은 9월 20일까지 마산도서관 3층 갤러리 푸르미르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전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누리집(https://mslib.gn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태웅 작가 초대전 : 비상飛翔 Flying Up〉

기간 9월 4일부터 9월 18일까지
장소 경상남도교육청 본청·복도 2층, 4층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
누리집 https://gne.go.kr

〈김옥숙 작가 초대 개인전〉

기간 8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장소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용마산길 12)
운영 평일 9~21시까지, 주말 9~18시까지
휴관 매월 셋째 월요일·법정 공휴일
누리집 https://mslib.gne.go.kr

이달의
경남교육 행사를
소개합니다

9

열매달

2023

- 가야산독서당 정글북
- 김해도서관
- 김해지혜의바다도서관
- 마산도서관
- 마산지혜의바다도서관
- 유아교육원 김해체험분원
- 유아교육원 진주체험분원
- 창원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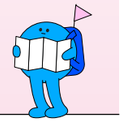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창원도서관 체험 프로그램 안내

VR 프로그램
9월 중 해당 날짜에 행사
2, 6, 7, 13, 14, 16, 20, 21, 27일
책담 2층 책고리 / 10:00(평일), 14:00(주말)

샌드 크래프트
9월 중 매주 주말 (토, 일)
책담 1층 누리홀 / 10:00, 16:00

토요 그림책 놀이
9월 중 매주 토요일 (30일 제외)
해담 1층 해2 / 13:00



학생 체험프로그램 <정글북>

초등
해당 날짜에 행사
6, 7, 8, 13, 14, 15, 20, 21, 22, 27일

중등
해당 날짜에 행사
1, 22, 26일

- 10:00~15:00 / 김해체험분원 / 자연과 친구되는 유아 생태체험 (~9.30.까지)

- 16:00~17:00 / 정글북 야외무대 / 젊은예술 날라리와 쟁이 퓨전국악 공연
- 10:00~12:00 / 1층 유아실 / 책이랑 놀이랑 <걱정인형 만들기>
- 15:00 / 별빛마루 / 동화랑 놀자
- 16:00 / 지혜마루 / 어린이뮤지컬 <우리가 만든 공주 이야기>
- 17:00 / 나눔방 / 부모교육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의 어머니>
- 17:00 / 별빛마루 / 아빠와 아이가 만든 공주 이야기
- 10:00~12:00 / 3층 더배움 1 / 새롭게 업사이클링
- 15:00~15:45 / 1층 세상을 봄 / 여름에서 가을으로 <클래식 3중주 연주회>
- 14:00~16:00 / 1층 구암홀 / 인문학 <법의학자가 바라보는 죽음 그리고 삶>
- 10:00~16:00 / 유아교육원 진주체험분원 / 토요가족체험
- 10:00~13:00 / 꿈담 3층 꿈5 / 체험 <한지 꽃이 피었습니다>
- 14:00 / 해담 3층 해담홀 / 체험 <토요책동산(동물시계만들기)>
- 16:00~18:00 / 꿈담 4층 꿈1 / 체험 <꿈을 꾸고 실천하는 미래유권자>

- 10:30~12:30 / 꿈담 1층 꿈담홀 / 강연 <독서아카데미>
- 16:00 / 책담 1층 누리홀 / 체험 <아띠랑 나랑>

- 15:00~17:00 / 허왕후실 / 길위의 인문학(~9.22.까지)

- 16:00~17:00 / 북카페 / 인형극 <오리가 한마리 살았는데>
- 10:00~12:00 / 2층 구지봉실 / 모두를 위한 그린 <커피 찌꺼기 업사이클링>
- 14:00~14:40 / 3층 시청각실 / 아이랑 동화극장 <도서관으로 찾아온 마술사>
- 14:00 / 지혜마루 / 토토로 어서옵SHOW <메츠클라>
- 15:00 / 별빛마루 / 동화랑 놀자
- 14:00~16:00 / 3층 무학전당 / 경남(문학)을 만나다 강연 <시를 위한 詩>
- 15:00~15:45 / 1층 놀이꽃밭 / 인형극 <하늘로 날아간 애벌레 외 1편>
- 11:00~12:00 / 2층 지혜마루 / 힐링공연 <책 읽어주는 음악회 (죽은 시인의 사회)>
- 09:30~12:00, 14:00~16:30 / 김해체험분원 / 가족 나들이 토요 체험
- 10:00~11:00 / 책담 1층 꿈뜨락 / 공연 <다문화 인식 개선 인형극>
- 10:00~12:00, 13:30~15:30 / 꿈담 4층 꿈1 / 체험 <원데이 클래스>
- 10:00~13:00 / 꿈담 3층 꿈5 / 체험 <한지 꽃이 피었습니다>

- 14:00~16:00 / 꿈이룸공작소 / 도서관X동네책방 <정인한 작가와의 만남>
- 10:30~12:30 / 꿈담 1층 꿈담홀 / 강연 <독서아카데미>
- 16:00 / 책담 1층 누리홀 / 체험 <아띠랑 나랑>

- 산청 생초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찾아가는 과학체험

- 16:00~17:00 / 북카페 / 옥이의 마술공장
- 14:00~16:00 / 3층 시청각실 / 저자와 함께하는 강연릴레이 <정지돈>
- 11:00 / 별빛마루 / 별빛 인형극 <호랑이 생일잔치>
- 09:00~18:00 / 1층 로비 / 책탑 피라미드 쌓기
- 15:00~15:45 / 3층 무학전당 / 안데르센 동화 콘서트
- 10:00~12:00 / 1층 동화방 / 체험 <책 읽어주세요>
- 16:00~16:50 / 2층 지혜마루 / 힐링공연 <비라스의 브라스 살롱>
- 14:00 / 해담 3층 해담홀 / 체험 <경남을 배우다>
- 15:00 / 책담 1층 꿈뜨락 / 공연 <나태주 시인을 담다>
- 10:00~12:00, 13:30~15:30 / 꿈담 4층 꿈1 / 체험 <원데이 클래스>
- 10:00~13:00 / 꿈담 3층 꿈5 / 체험 <한지 꽃이 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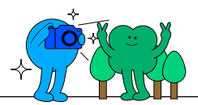
- 14:00~16:00 / 2층 구지봉실 / 김해신중년클래스 <자개선캐쳐 만들기>
- 10:30~12:30 / 꿈담 1층 꿈담홀 / 강연 <독서아카데미>
- 16:00 / 책담 1층 누리홀 / 체험 <아띠랑 나랑>

- 10:00~12:00 / 1층 상상창작방 / 원데이 <가족을 잇는 티타임 커피잔 만들기>

- 15:00~16:30 / 북카페 / 정글in 그림책작가 <한기현> 몸짓극
- 10:30 / 별빛마루 / 통통그림책데이트 <김지영>
- 15:00 / 별빛마루 / 동화랑 놀자
- 14:00~16:00 / 3층 무학전당 / 토요 인문 특강 <윤성근 작가 강연>
- 11:00~11:40 / 2층 지혜마루 / 동화콘서트 <책과 함께하는 마술쇼 (달콤한 무한상상)>
- 10:00 / 책담 1층 꿈뜨락 / 공연 <동화인형극(팥죽할멈과 호랑이)>
- 14:00 / 꿈담 1층 꿈담홀 / 강연 <STOP 1.5°C>
- 10:00~12:00, 13:30~15:30 / 꿈담 4층 꿈1 / 체험 <원데이 클래스>
- 10:00~13:00 / 꿈담 3층 꿈5 / 체험 <한지 꽃이 피었습니다>

- 11:00 / 지혜마루 / 수요음악회 <무소르그스키>
- 15:00 / 책담 1층 해오름 / 영화 상영 <씨네 라이브러리 (말모이)>

- 15:00 / 별빛마루 / 동화랑 놀자



• 프로그램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면 관계상 일부만 소개하였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각 기관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독서의 계절, 도서관으로 떠나는 여행

경남도교육청 창원·마산·진동도서관

“얘들아! 도서관에서 놀자!”

도서관 풍경은 예측 가능하다. 사람들 대부분은 읽고, 쓰고, 본다. 누군가는 안락한 의자에 몸을 맡기고 망중한을 즐긴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무언가에 몰입하고 치열하게 열중한다. 어쩌면 도서관은 고요한 듯 가장 역동적인 곳이다.

글 최규정 **사진** 백동민

01 창원도서관의 장서점검 로봇 ‘서치봇’
02 마산도서관 열람공간 ‘품안애서’
03 진동도서관 ‘북카페’

01

02

03

그 어느 때보다 힘들었던 여름이 지나가고 있다.

만사 무기력하게 만들 만큼 이글거리던 불볕도 한풀 꺾였다. 아침저녁으로 스치는 바람에 찬 기운이 실린다. 그 바람을 마주하고 책을 펼쳐보는 것은 어떨까? 찰스 W 엘리엇은 “책은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다. 책은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가장 현명한 상담자이자 가장 인내심 있는 교사이다”라고 말했다.

책이 있는 곳, 도서관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각기 다른 매력을 자랑하는 경상남도교육청의 창원·마산·진동도서관으로 들어가 본다.

04

05

04 마산도서관 '세상을 봄'
05 마산도서관 '놀이꽃밭'
06 창원도서관의 책 읽어주는 로봇 '아띠봇'
07 창원진동리유적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미래 도서관의 모습이 궁금하다면 창원도서관으로 떠나보자. 1983년 개관한 창원도서관이 지난해 10월 새로운 부지에 미래형 도서관으로 탈바꿈했다.

창원도서관은 복합 문화 공간 '책담'과 평생학습과 문화창작 활동을 위한 '꿈담', 그리고 행정 시설과 교육 시설이 있는 '해담'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공간은 바로 '책담'이다. '책담'에 들어서면 길을 안내해 주는 로봇 '라봇'을 만날 수 있다. 몸통 화면을 누르면 도서관 내부 시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시설을 터치하면 로봇이 길을 안내해 준다. 사진을 찍어 메일이나 문자로 전송받을 수 있다.

1층은 주로 아이들을 위한 공간. 특히 책 읽어주는 로봇, '아띠봇'은 아이들에게 인기다. 안내 데스크에서 빌릴 수 있는 아띠봇은 경상남도교육청 도서관에서 최초로 도입한 책 읽어주는 로봇. 읽고자 하는 책을 로봇에게 인식시키면 책장을 넘기지 않아도 성우, 원어민 등의 목소리로 실감나게 책을 읽어준다. 서치봇 로봇은 도서에 내장된 IR칩을 인식하여 밤 9시 이후, 사서들이 퇴근하고 나면 서가에 책이 제대로 꽂혀있는지, 분실된 책은 없는지 연동된 프로그램으로 책의 위치를 파악한다. 2층은 청소년 책을 만날 수 있는 '우리누리'와 일반인 종합자료실 '모두누리'로 구분되어 있다.

06

07

AI 기반 디지털 북 큐레이션인 '나만의 발견'은 경남 최초의 디지털 맞춤형 북 큐레이션으로 2,000여 종의 책에서 독서자의 취향에 맞는 구절 등을 카드형 콘텐츠로 보여준다.

차로 5분 거리에는 전시품의 90% 이상이 체험·참여형으로 이뤄진 창원과학체험관이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

1954년 시립도서관으로 문을 열었던 마산도서관은 지난 2021년 8월 20일 리모델링을 거쳐 재개관했다.

1층 '세상을 봄' 공간은 아이들을 위한 곳이다. 아이들을 배려한 공간 안에 유아책과 아동도서가 가득하다. '놀이꽃밭'은 말 그대로 놀이공간이고 '품안애서'는 열람공간, '바깥애서'는 테라스로 연결된 야외공간이다. 2층 지혜를 봄(종합자료실)은 청소년과 일반인을 위한 공간이다. 소담방(잡지·신문 이용), 도담방(장애인독서보조기 이용, 큰 글자 도서 이용), 여유당(열람공간) 등 참 고운 이름들의 공간들이 각각의 목적으로 사람들을 맞이한다. 3층은 '함께해봄'이란 이름으로 대규모 강연 및 문화강좌 등이 열린다. 마산도서관의 매력은 산호공원과 인접해 있다는 것이다. 용마산 일원의 산호공원은 상록수림이 우거진 산책로와 오름길을 따라 우리 지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시비와 문학비를 감상할 수 있다.

www.gnedu.kr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진동도서관

1993년 개관하여 2001년 경상남도의 평생 학습관으로 지정된 진동도서관은 진동초등학교와 삼진고등학교 사이에 난 길을 따라 200여 미터 오르면 야트막한 산 밑에 자리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진동 도서관은 책과 함께 한적한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주요 내부 시설로는 일반 자료실을 비롯해 어린이 자료실, 디지털 자료실, 자유 학습실, 강의실 등이 있다. 소장 자료로는 일반 도서 및 어린이 도서 7만 6,296권과 멀티미디어 자료 5,523점, 연속 간행물 42종을 보유하고 있다. 대도시에서 떨어져 있는 지역이지만 다양한 문화 행사와 독서 토론 모임 등을 운영하며 지역민과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준다. 특히 1층 북카페는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2층 유아동화방은 엄마·아빠와 함께 아이들이 맘껏 책을 읽을 수 있는 곳으로 새롭게 단장해 누구나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도서관으로 손색이 없다. 청동기 시대 역사가 담겨 있는 창원진동리유적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여기에 복합 문화 공간으로 독서와 체험, 다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경상남도교육청 마산지혜의바다 도서관(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북 12길 24-1, 055-252-3860), 김해지혜의바다 도서관(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1541번길 8, 055-330-9800)까지 돌아본다면 도서관 여행만으로 이 가을이 짧을지도 모르겠다.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주소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97-33
운영 9~21시까지(스마트누리 연중무휴)
문의 055-278-2800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
주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용마산길 12
운영 9~21시까지(주말 9~18시)
문의 055-240-4555

경상남도교육청 진동도서관
주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삼진의거대로 661-94
운영 9~18시까지(자유학습실 9~22시까지)
문의 055-271-8144

• 도서관별 휴관일이 다르니 자세한 운영시간은 누리집을 확인해주세요.

우리가 목소리를 모을 때 <함안합창가족>

합창은 서로 다른 음역, 서로 다른 음색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로 어우러지는 연습을 한다는 점에서 화합과 협동의 상징으로 충분하다. 함안군의 '가야 100인 패밀리 합창단(이하 백합단)'은 4세에서 100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모여 세대 간 소통과 통합을 향해 6년째 순항하고 있다. 창단 초기부터 '백합단'과 함께 해 온 예성이네 가족을 만나 합창이 주는 즐거움을 들어보았다.

아빠 안병철
엄마 공경화
아들 안예성(함안중2)

글 임승주 **사진** 백동민

함안합창가족, 같이 하실래요?

'백합단'이 창단된 것은 2018년 4월. 함안 가야읍주민자치센터 특화 프로그램 일환으로, 세대 간 화합과 소통을 목표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의기투합한 합창단이었다. 목표한 단원은 100명. 함안 출신으로 평소 지역사회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는 안병철 씨에게 합창단 소식이 빠질 리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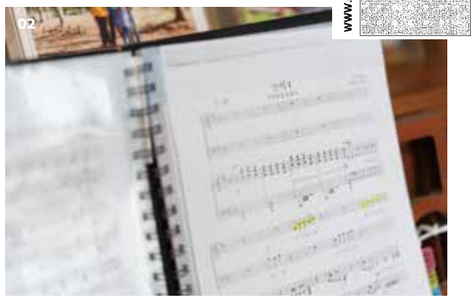
아빠 안병철 "함안 출신으로 한 지역에 계속 살다 보니 '100인 합창단을 하니 함께하자'는 요청을 자연스럽게 받았지요. 세대를 아우른다는 취지가 좋아서 기꺼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공경화 "처음에는 합창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갔어요. 제가 바깥 활동을 즐기는 성격이 아니어서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죠. 막상 갔더니 어울리는 분위기도 좋고, 가르치는 분들도, 주민자치회 분들도 서로 열의를 가지고 가르치고 배웠어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따라오기 쉽고 재미있게 이끌어 주셨던 것도 좋았고요."

01

처음에는 부부가, 이듬해에는 둘째 예담 양이 백합단에 합류했다. 예담 양이 대학생이 된 후에는 타지에서 대학을 다니느라 합창 활동이 어려워지고, 그 사이 셋째 예성 군이 합류했다.

백합단은 엄마 아빠를 비롯해 어른 단원들은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30분, 가야읍행정복지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연습을 하고, 예성이 같은 어린이와 청소년 단원은 특별한 무대가 있을 때 집중 연습을 거쳐 무대에 함께 선다. 아빠는 테너, 엄마는 알토, 예성이는 소프라노로 합창단에 목소리를 보태고 있다.



02

03

01 딸이 주로 치던 피아노 앞에 엄마가 앉았다
02 민요부터 가곡까지, 합창곡에 한계는 없다
03 연습 때마다 꼭 챙겨다니는 악보집

아들 안예성 "엄마 아빠가 처음 합창단 가자고 했을 때는 솔직히 내키지 않았어요. '집에 혼자 있느니 가볼까' 정도의 생각이었는데, 엄마 아빠 노래하는 모습을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색달랐어요."

엄마아빠의 노래를 들어본 적 있나요

이전까지 함께 노래방에도 가 본 적 없던 가족은 합창단을 통해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들의 노래하는 목소리를 처음으로 들었다. 새로운 경험이었다.

무엇보다 합창을 시작한 이후 가장 크게 변한 사람은 엄마 공경화 씨다. 지역사회 일에 관심이 많은 남편을 돕다 보니 자연스럽게 합창단 신규 단원의 악보를 챙기는 일이나 일정을 알리는 일도 아내 경화 씨가 두루 돕게 됐다. 분명 수고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합창단에 대한 애정도 쌓여갔다.

엄마 공경화 "시간이 쌓이면서 합창단 단원들과 대화도 많아졌어요. '지난주에는 어떻게 지냈냐' 서로 안부도 묻고,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잘하냐' 등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면서 제 인간 관계도 넓어진 느낌이 들어요. 합창단에서 가곡부터 트로트까지 편곡해서 부르다 보니 음악적 소양도 넓어진 것 같고요. 무엇보다 가족 사이에 공통분모가 생겼다는 점이 좋아요."

백합단 활동을 하기 이전까지 예성이네는 주말이면 엄마와 세 남매는 교회에 가고, 아빠는 산악회 사람들과 등산을 가느라 가뜩이나 대화가 적은 집이었는데 특히 첫째 예은이와 둘째 예담 양이 대학생이 되어 타지에서 생활하게 된 후로는 집안의 말소리가 더욱 줄어들었다. 합창을 하면서 가장 좋은 점 역시 가족 간 대화가 늘었다는 점이다.

아들 안예성 "합창하기 전에는 아빠 만날 시간이 많이 없어서 대화를 할 시간이 부족했는데, 그래도 합창을 하면서 보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많아지니까 아빠랑 더 친해진 것 같아요."

05

06

04

04 2019년 제1회 정기연주회
05 2019년 제1회 정기연주회를 마치고
06 2019년 경상남도 신년인사회 공연 당시
07 부모님의 노래 실력을 묻자 웃는 예성이

07

사춘기 아들,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매일 살을 부대끼고 살면서도 서로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가족. 어쩌면 우리 시대 가족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 아닐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는 이제 옛말. 이번 기회를 빌려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바람을 남겨 달라고 청했다.

아들 안예성 "저는 노래 듣는 것을 좋아하는데 가족들의 취향이 다 달라서 함께 즐기기보다는 혼자 듣고 즐기는 경우가 많아요. 앞으로는 각자의 음악에도 관심을 갖고 함께 듣고 즐길 수 있는 우리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엄마 공경화 "딸 둘이 대학생이 되고 이제 사춘기 아들이 남았는데, 아이들이 점점 제 품을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엄마 아빠가 지휘자 역할을 잘 해줘야 하는데 그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고민도 되고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함께 헤쳐 나가야 할 일이 있으면 지혜롭게 이야기 나누는 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빠 안병철 "바랄 게 뭐 있습니까. 행복하게 사는 거죠. 각자 공부 열심히 하고, 우리 가족 화목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야 100인 패밀리 합창단
- 2018년 창단
- 2018년 경상남도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최우수상
- 2019년 제16회 전국주민자치센터 문화경연대회 본선 장려상
- 2021년 제3회 경상남도주민자치박람회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장려상
- 2019~2022년 매년 정기연주회

가야 100인 패밀리 합창단 단원 모집
- 4세에서 80세까지 노래를 사랑하는 함안군민 누구나 환영
- 수업 일시 :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30분 부터 8시 30분 까지
- 수업 장소 : 가야읍행정복지센터 2층

우리말 돋보기

다섯 번째
알쏭달쏭한 단어

일상생활에서 발음이 비슷하거나, 생김새가 비슷해서 잘 못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선배와 카카오톡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끝맺음 인사를 하려고 할 때. 갑자기 "내일 봬요.", "내일 뵈요." 두 문장 가운데 무얼 써야 할지 헷갈립니다. 상사에게 '결재'를 요청할지, '결제'를 요청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아이에게 "사과가 몇 개인지 갯수를 세어 보아라."라고 말하는 게 올바른지 의심쩍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 외에도 자주 헷갈려 하는 단어는 무엇이 있을까요.

* 정답은 "내일 봬요.", "상사에게 결재를 요청하다.", "사과가 몇 개인지 개수를 세어 보아라."입니다.

글 경상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 국어전문가 김민지

임신부-임산부

대중교통을 타거나 공공기관에 가면 아이를 밴 여성을 위한 전용 좌석이나 주차장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부', '임산부'를 구별하지 않고 쓰는 경우가 많아 동의어로 알고 있는 분이 많죠. 임신부(妊娠婦)는 아이를 밴 여자, 임부를 뜻합니다. 임산부(妊産婦)는 임부와 산부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아이를 밴 여자, 아이를 갓 낳은 여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임신한 여자에게 자리를 양보할 것을 나타내고자 하면 '임신부'라고 쓰는 게 정확합니다.

▲ 통영 지역 한 공연장의 주차장

결제-결재

'결제', '결재' 이 두 단어의 뜻은 다르나 생김새가 비슷하여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먼저 두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결제'는 '증권 또는 대금을 주고받아 매매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계를 끝맺는 일'을 뜻합니다. '결재'는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함'을 말합니다. 이주윤 작가는 그의 책 〈요즘 어른을 위한 최소한의 맞춤법〉에서 '결제'와 '결재'를 구분하는 좋은 방법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물건을 사고 돈을 지불하려면 카드 단말기에 신용카드를 삽입해야 하는데 '결제'의 '에'는 가운데가 휑하기 때문에 신용카드가 쑥 들어간다고 합니다. 반면 '결재'의 '애'는 가운데가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넣으려야 넣을 수 없다나요?" (115쪽)

▲ 유튜브 채널 듣똑라 갈무리

담다-담그다-담구다

〈① 겨우내 먹을 김치를 담갔다 ② 겨우내 먹을 김치를 담궜다 ③ 겨우내 먹을 김치를 담았다〉 중 무엇이 올바른 문장일까요? 정답은 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치를 담아 먹는지, 담가 먹는지, 담궈 먹는지 헷갈려 합니다. '담다'는 '어떤 물건을 그릇 따위에 넣다'라는 뜻으로 간장을 병에 담다, 술을 항아리에 담다 등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담다'의 활용형은 '담아', '담으니'입니다. '담그다'는 '액체 속에 넣다, 김치·술·장·젓갈 따위를 만드는 재료를 버무리거나 삭도록 그릇에 넣어 두다'라는 뜻으로 '담가', '담가서', '담갔다', '담근'의 형태로 활용합니다. '담구다'는 사전에 없는 말이기 때문에 '담궈', '담궜다'로 쓸 수 없습니다.

▲ 유튜브 채널 엠뚜루마뚜루 갈무리

9월 호 우리말 퀴즈!

다음 밑줄 친 부분이 올바르게 쓰인 것을 고르시오.

① 그 이야기를 듣자 웬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② 오늘이 몇일이죠?
③ 어깨에 배낭을 매다.
④ 정답을 맞추다.
⑤ 아버지의 유언을 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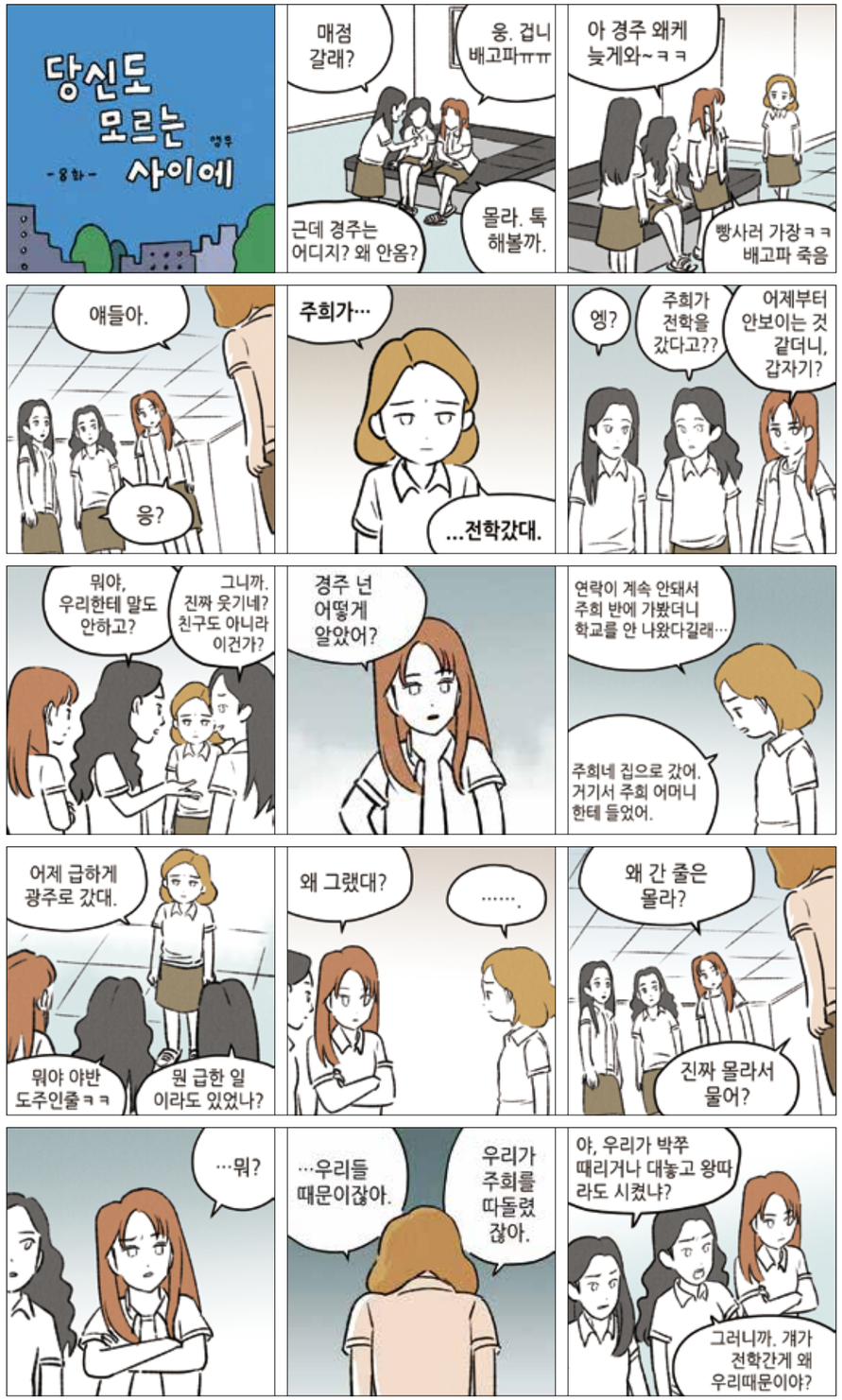
정답:⑤ (① 웬지 → 왠지 ② 몇일 → 며칠 ③ 매다 → 메다 ④ 맞추다 → 맞히다)

학교폭력 예방웹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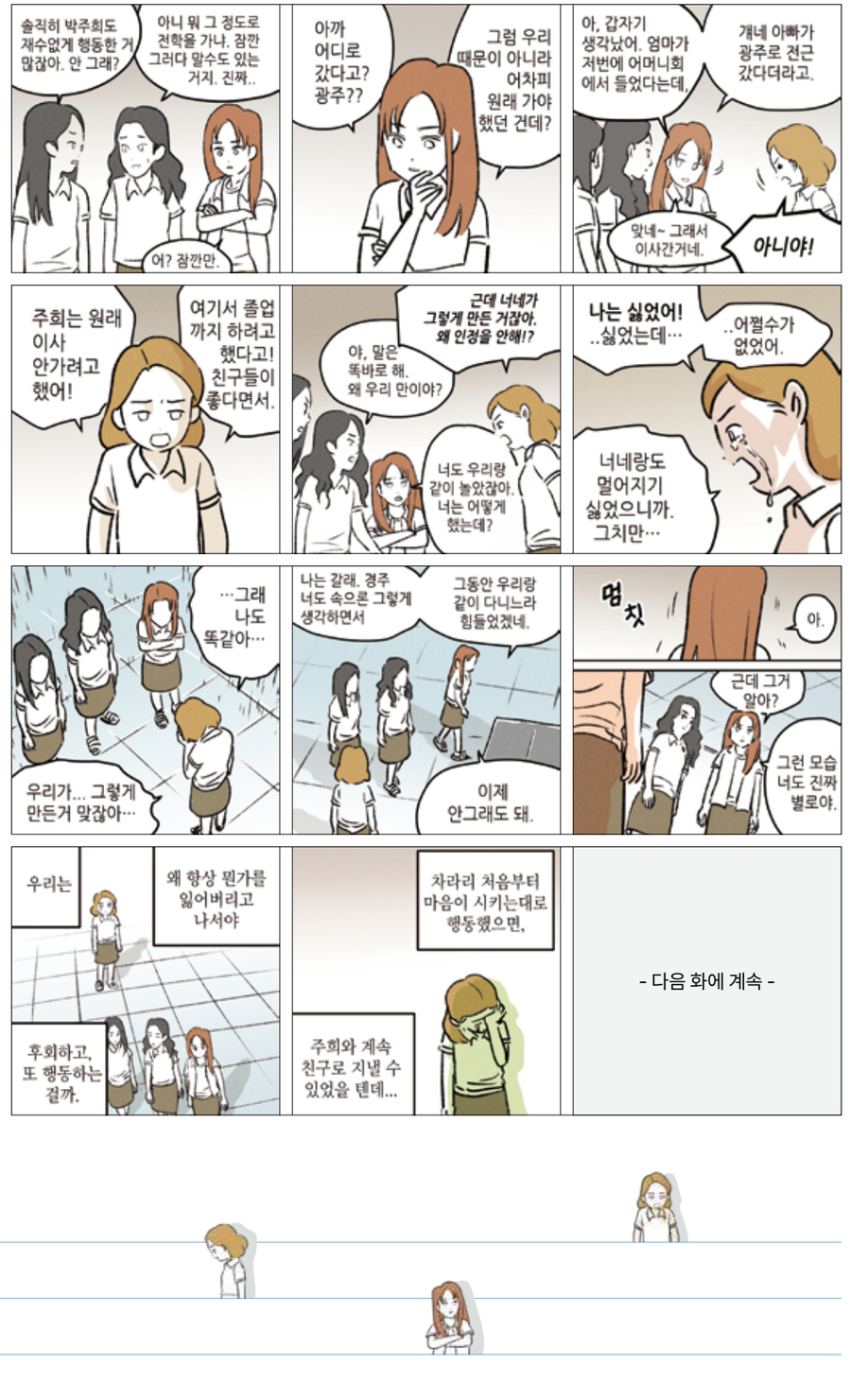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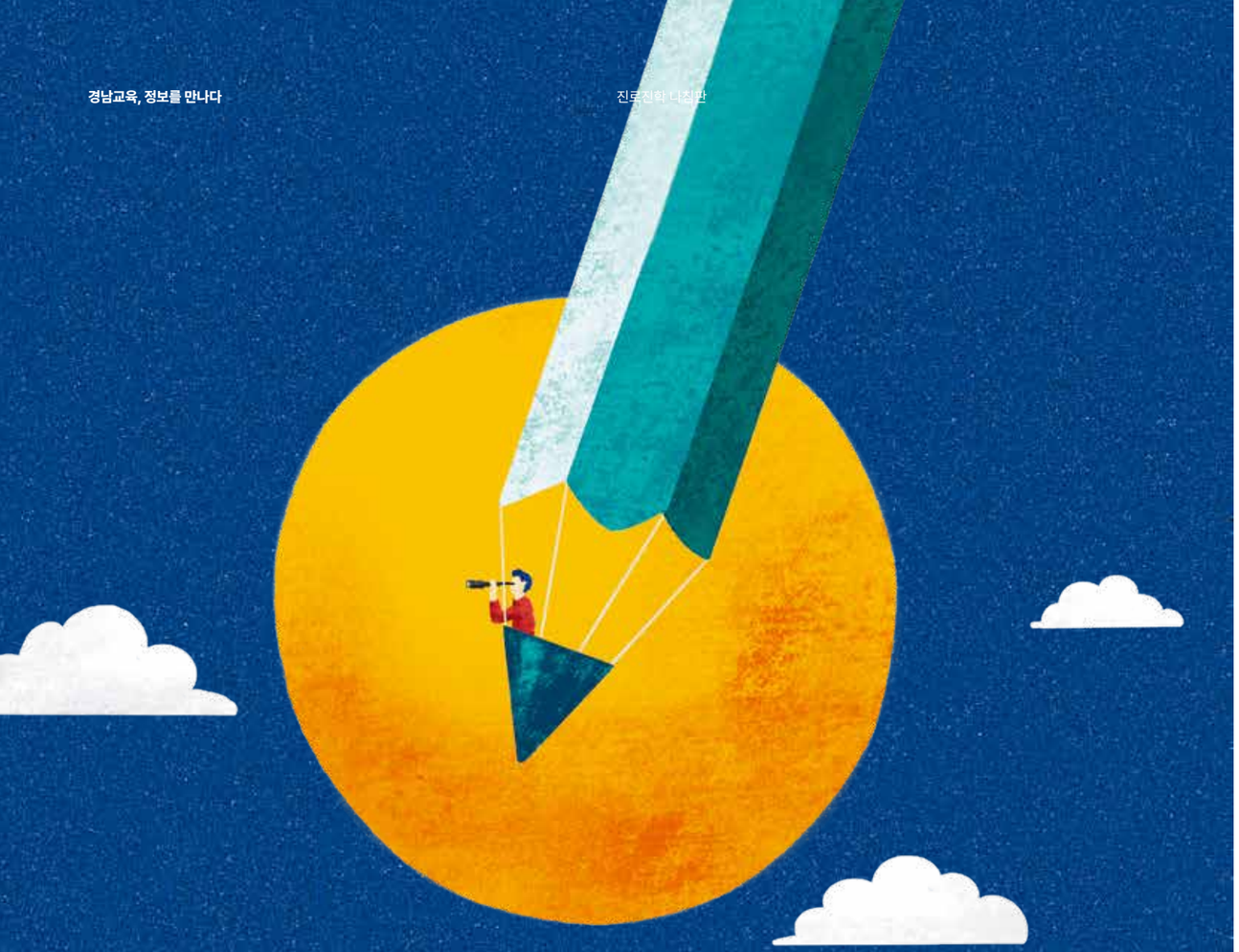
8화

웹툰작가 **앵무**



www.gnego.kr 경상남도교육청





2024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전형별 특징 및 지원전략

2024학년도 재학생의 학령인구 감소와 N수생의 증가 예상으로 수도권과 지역대학의 수시모집의 지원전략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위권 중심의 지원이 많은 대학은 오히려 입시 환경의 변화로 어느 해 보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재학생 기준으로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과성적과 수능등급 인원 축소 등으로 힘든 입시가 예상됩니다. 지역대학은 의학계열을 제외하고는 재학생 수 감소로 예년에 비해 합격선 하락이 예상되므로 이점을 유의하여 지원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2024학년도 경남지역 9개 대학은 수시모집 11,448명(88.93%), 정시모집 1,516명(11.07%)로 12,964명을 선발합니다. 수시모집에서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많은 학생을 선발하며, 학생부종합전형은 물론 학생부교과전형에서도 다수의 대학과 학과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작년 입시결과를 중심으로 학교 선생님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수시모집 지원에 임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2024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특징과 전략을 살펴봅니다.

글 대입정보센터 김종승 장학관

가. 학생부종합전형

- 2024학년도부터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에 따라 일반대학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었고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대입에 미반영 되는 항목(자율동아리, 개인 봉사, 수상경력, 독서활동 등)이 확대되면서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항목의 평가비중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
- 2단계 면접 반영 비율 확대 및 면접을 실시하는 전형을 새롭게 신설한 대학이 증가하면서 면접이 최종 합불에 영향력을 크게 미칠것으로 예상되니 대학별 면접유형을 확인하고 대비해야 함

나. 학생부교과전형

- 2023학년도에 비해 진로선택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증가하므로 정량적 교과성적의 영향력을 작년 입결과 대비하여 살펴봐야 함
-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는 대학이 증가하여 교과성적이 합불에 미치는 영향력 커짐
- 전체 모집인원은 15만 4,349명으로 전년에 비해 115명 감소(수도권 소재 대학은 2만 7,181명으로 489명 감소)하였으며 다른 전형에 비해 모집인원의 큰 차이는 없음
- 서류평가 반영으로 지원하는 학과와 연계한 과목을 이수하였는지 고려하여야 함(경북대, 부산대 등)

다. 논술전형

- 전체 선발 인원은 큰 변화가 없으며 한양대(ERICA), 울산대(의예과)에서 논술전형 폐지
- 일부 논술 100% 전형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학이 논술 성적 이외 교과성적 일정 비율을 반영하나 영향력은 제한적이며,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여부가 당락을 결정함

수시모집 지원시 유의점

- 대학별로 원서접수와 마감 시간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함
  - 경남지역 대학 원서접수 마감일은 9월 15일이나 아래 시간처럼 마감시간이 상이함. 진주교대(17시), 가야대·경남대·영산대·인제대·창신대·창원대(18시), 경상국립대(19시)
- 지원대학별 면접고사일 중복여부도 확인해야 함
  - 경상국립대 간호대학 학생부종합전형 일반·지역인재전형(11월 22일)
- 수시모집 지원 가능한 횟수는 최대 6회로 제한함. 단,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은 지원횟수 제한 없음
-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지원 횟수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한 학생의 전형에 대해서는 지원자격을 부여할 수 없음
- 수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최대 6개 전형 이내에서 복수지원 가능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의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 하지 않음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및 각종학교
  :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2024학년도 대학 수시모집전형 일정

구분	내용
원서접수	2023. 09. 11.(월) ~ 15.(금) 중 3일 이상
전형기간	2023. 09. 16.(토) ~ 14.(목) 90일
합격자 발표	2023. 12. 15.(금)까지
합격자 등록	2023. 12. 18.(월) ~ 21.(목) 4일
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2023. 12. 28.(목) 합격자 발표 18시까지(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14~18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함)
수시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	2023. 12. 29.(금)

2024학년도 전문대학수시모집전형 일정

모집시기		접수기간	최초 합격자		충원 합격자	
			발표	등록	발표	등록
수시	1차	2023.09.11.(월) ~ 10.05.(목)	2023.12.15.(금)까지	2023.12.18.(월)~ 21.(목)	2024.01.02.(화)까지 (발표 21시까지)	
	2차	2023.11.10.(금) ~ 11.24.(금)				

숫자로 보는 경남교육

경남에서 가장 오래된 초·중·고등학교

근대 교육이 시작된 1800년대 말, 경남에서도 근대 학교 설립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보다 더 긴 100여 년의 세월. 그 오랜 시간 동안 제자리를 지켜온 경남의 학교들이 있지요.

출생률 감소에 따라 점차 학생 수도 줄어가는 요즘,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꿈을 키워나가는 오래된 학교의 이야기가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경남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는 어디일까요? 초·중·고등학교별로 한 곳씩 총 3곳의 학교를 꼽아보았습니다. 긴 역사만큼이나 학교가 품고 있는 다채로운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초

진주초등학교

진주초등학교는 근대 학교로서 1895년 소학교령(칙령 145호)에 의거 경상우도 소학교로 설립되었다. 긴 역사만큼이나 대한민국의 근·현대 초등교육 발전에 기여한 바가 컸다. 1969년 서울신문사 제정 제1회 한국교육상을 수상하여 그동안의 업적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또한 진주초등학교를 졸업한 동문들은 각계각층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빼어난 인물이 많아 영남 인재의 산실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 **1895. 9.** 경상우도소학교 개교
- **1906. 9. 1.** 공립진주보통학교로 개칭(한국최초 남녀공학)
- **1950. 6. 1.** 진주 중안국민학교로 개칭
- **1996. 5. 26.** 개교 100주년
- **2011. 11. 2.** 진주초등학교로 개칭

▲ 진주초등학교(당시 공립진주보통학교) 대한제국 황태자 책봉 기념사진(1907)

KOR 경상남도교육청
www.gne.go.kr

중

창신중(고등)학교

창신학교는 1908년 호주 선교부에 의해 설립·개교되어, 당시 암울했던 시대 상황에서 민족 개화와 구국 운동에 앞장서는 신교육의 효시 역할을 했다. 해방 후에는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인재 양성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수많은 엘리트를 배출함으로써 명문 사학으로 자리잡았다.

- **1908. 9. 15.** 창신학교 개교, 초대교장으로 손안로(ADAMSON) 호주 선교사 취임
- **1938. 7. 20.** 신사참배 거부로 인한 일제탄압으로 폐교
- **1948. 5. 1.** 창신초급중학교 설립(재건)인가, 초대교장에 이순필 장로 취임
- **1983. 9. 8.** 창신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 **2008. 9. 19.** 창신개교 100주년 기념식

▲ 창신중학교 제1회 졸업생(1951)

고

마산여자고등학교

마산여자고등학교는 마산실과고등여학교로 1915년 3월 21일 설립된 일본인 학교였다. 1921년 4월 1일 마산공립고등여학교 설치 인가를 받았으며, 이는 공립고등여학교로는 경남에서 최초의 일이다. 일제 강점기 치욕적인 역사를 딛고 민족학교로서의 긍지와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으며 6·25전쟁 등 근현대사의 질곡 속에서도 교육에 대한 열정과 긍지로 지역 명문 학교로서의 위상을 지켜냈다.

- **1915. 3. 21.** 마산실과고등여학교 설치 인가(수업연한 2년)
- **1993. 1. 9.** 본관 건물 개축 이전
- **2005. 11. 9.** 마산여고역사관 개관
- **2015. 3. 28.** 100주년 기념식 및 기념관 개관

▲ 마산여자고등학교(마산실과고등여학교) 제1회 졸업생(1916)

경남교육 NEWS

행복교육지구 학생 활동 지원, 멈추지 않겠습니다

경남교육청, 초등학교 학습지원 담당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실시

전담 강사·전문가 지원, 두드림 프로그램 운영 등 초등학교 학습지원 담당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실시

경상남도교육청은 상반기 기초학력 심층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집중 지원을 이어간다. 2023학년도 경남교육청 '아이동행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다양한 원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중 심층 진단이 필요한 초·중학생 340명을 대상으로 종합심리검사(풀배터리검사)를 하였다. 그 결과 약 57%에 해당하는 193명이 지적 장애 또는 경계선 지능 학생으로 판별되었고 이들은 대체로 부적응 지수와 우울, 과잉행동 의심, 가족관계 문제 등 심리 정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 또한, 평균 또는 그 이상의 지능을 가진 학생 중에서도 학생 109명(32%)은 부적응 지수와 우울, 과잉행동, 가족관계 문제 등 일상생활에서 심리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는 이러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기초학력 전담강사 우선 지원과 두드림학교 프로그램 지원을 이어간다. 경남교육청은 초등학교 188곳에 하반기 프로그램 예산 3억 7,700만 원을 추가 지원하였으며 교육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는 전문가의 심리 지원을 위하여 지역 상담센터를 연계, 학생당 총 10차례 집중 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남교육청, 예산 부족에 따른 학생 피해 최소화 대응 직속 기관, 지원청, 도서관 등 프로그램 긴급 개설

경상남도교육청은 행복교육지구 예산 부족으로 지역별 마을배움터가 중단되고 축소 운영되자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남 지역의 모든 교육기관과 함께 힘을 모은다. 경남 지역의 직속 기관, 교육지원청, 도서관 등 모든 교육기관에서 기존 프로그램에 참가자를 추가하거나 신규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개설하여 학생 약 4만 5,000명이 추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1차 추경 예산 삭감으로 행복교육지구 일부 사업이 중단됐지만 경남교육청은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힘을 쏟고 있다.

이번 학생 활동 지원은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혁신과에서 총괄하고 도내 모든 교육기관이 공동으로 방과 후, 주말, 방학 중에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과 지역 돌봄 활동을 지원한다. 경남수학문화관을 포함한 8개 직속 기관, 18개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 28개 도서관이 협력하여 프로그램 총 428개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기관별 시설 개방, 강사 지원, 교육 물품 대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돕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이나 마을배움터에서는 지역 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관에 직접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다.

경남교육 NEWS

미래교육 국제콘퍼런스, 의령에서 미래의 희망을 열다!

박종훈 교육감·미네르바 스쿨 총장 강연 다섯 가지 교육 대전환 방향 제시

경상남도교육청은 미래교육원에서 지난 8월 '2023년 미래교육 국제콘퍼런스'을 열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날 개막식에서 '대전환 시대 미래교육 전망과 경남교육의 전략'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였다. 박 교육감은 특강에서 다섯 가지의 교육 대전환 방향으로 △'교육' 특성을 공공재(public goods)에서 공동재(common goods)로 재정의 △인간상을 홍익인간(弘益人間)에서 생태적 인간으로 구체화 △보편교육의 질적 강화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학습 플랫폼 구축 △생태전환교육 내실화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덧붙여 박 교육감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첫째, 포용적 교육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둘째, 디지털 능력과 인간적 능력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 셋째,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체계'를 어떻게 선진화할 것인가? 등 세 가지 핵심 과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방향을 제시하였다.

경남교육청은 미래교육국제콘퍼런스를 계기로 교직원의 미래교육에 대한 인식의 확장하고 자립과 공존의 미래교육 가치를 본격적으로 펼칠 것으로 보인다.

삼천포공업고등학교, 전년도에 이어 취업 순항

올해 고3학생 한국석유공사·한전KPS· 한국수력원자력·현대삼호중공업 등 최종합격

삼천포공업고등학교는 올해 비교적 이른 시기에 대표적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석유공사, 한전KPS에 총 4명이 최종합격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대삼호중공업에 6명이 합격과 함께 장학금을 수여받는 쾌거도 이루었다. 전년도에 이어 공기업 및 대기업 취업률에서 13년간 경남 1위를 달성하기 위해 순항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취업 성과는 우수한 취업처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열망과 교장선생님 이하 학교 교직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 덕분으로 보인다.

특히 학생들의 취업열기가 높아 학생 1명당 평균 3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물론, 필수자격증을 취득하고 다른 학과의 자격증까지 섭렵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 취업 열망이 충만한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지도교사의 노력도 학교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삼천포공업고등학교는 학생의 의지, 교사들의 역량 강화, 교직원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더욱 공고히 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위원에게 듣는다

조영명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국민의힘·창원13)

Q 안녕하세요. 아이좋아 경남교육 소식지 독자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A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1·2동, 합성2동, 구암1·2동, 봉암동 지역구 교육위원회 조영명 의원(창원13)입니다. 독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찾아뵙는 것이 도리이겠으나, 소식지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항상 경남교육에 따뜻한 관심 보내주시는 경남교육 가족 여러분께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Q 의원님께서는 특히 마산 지역 학교 환경 개선에 목소리를 내고 계신데요. 이러한 환경 개선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상반기에 마산 지역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각 학교의 현안을 청취한 일이 있습니다. 마산 지역 5학군(마산회원구 구암동, 합성동, 양덕동, 석전동, 봉암동 일대 학군)의 초·중·고교를 대표해 각 학교장과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50여 명이 참석해 시급한 환경개선 현안을 건의했는데요. 아파

글 김달님 **사진** 백동민

트 밀집 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경우 과밀 학급 문제가, 구도심에 위치한 학교의 경우 통학로 확보, 노후화된 시설 개선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도출됐습니다. 더욱이 마산은 창원시내에서도 대표적인 구도심으로 분류되어 학교마다 시설 상당 부분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곽 신도시에는 과밀 학급 문제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죠. 이 두 가지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얼마나 원활하게 해소하느냐가 마산, 더 나아가서는 창원이라는 도시가 '아이를 키우고 교육시키기에 얼마나 적합한 지역'으로 인식되는가에 결정적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그 외 교육위원으로서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경남 교육정책은 무엇인가요?

A 개인적으로 독서교육 관련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제403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단위 학교가 아닌 교육청이 전자책 전체를 통합·관리하는 경남교육청의 정책 방향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2023년 본예산에 부산 시내 627개 학교에 대해 1개교당 500만 원씩 약 30억 원을 학교별 전자책 구입 예산으로 편성한 부산시교육청의 사례를 들어 도내에서는 단위 학교별 전자책 구입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단위 학교 마다 온라인 독서교육을 통해 의도하는 교육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전자책을 자율적으로 구비할 때 학교별로 독서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예산편성 운영 지침에 '전자도서를 포함한 도서 구입비'를 명시해 예산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 △학교운영비 1% 범위 내에서 전자도서 구입비 확보를 명문화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Q 지난 7월 제12대 경남도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았습니다. 2023년 상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반기 의정활동에 임하게 되실 텐데요. 어떤 포부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A 지난 1년은 어떻게 흘러왔는지 모를 만큼 빠르게 지났습니다. 개원 이후 교육위원으로서 교육정책 전반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자 했으나 미흡했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하반기에는 지역구 교육 현안들을 세밀히 살피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www.gnedu.kr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의회 소식

교육위원회,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교육위원회(위원장 박병영)는 8월 10일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교육위원회는 최근 교권침해 관련 사회적 이슈 발생에 따라 교직단체와 교육청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토론하였다.

교육위원회, 미래교육원 사전체험 실시

교육위원회(위원장 박병영)는 8월 23일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을 공유하고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미래교육원 사전체험을 실시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미래교육원 개관을 앞두고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된 전시·체험공간의 사전 점검 및 프로그램 체험을 실시하였고 향후 완성도 높은 사업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남공감
2023. SEPTEMBER VOL. 126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에서 '인생한방' 하세요~!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가 이달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35일간 산청IC 축제광장과 동의보감촌 일원에서 '미래의 약속, 세계 속의 전통 의약'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보건복지부, 경남도, 산청군이 공동주최하고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엑스포는 산청의 대자연 속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 의약 체험을 통해 건강과 치유를 만끽할 수 있는 '건강 힐링 엑스포'다.

무릉교

동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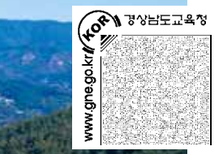
한의약의 본고장 산청군

산청군은 지리산 정기를 품은 1000여 종의 약초가 자생하는 한방약초의 고장이다. 조선시대에는 왕실에 28종의 명품 약초를 진상한 곳으로 수많은 명의가 이곳에서 활동했다고 전해진다. 이번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이하 산청엑스포)는 산청군이 항노화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더불어 '2013 산청엑스포' 10주년을 기념하고 K-문화와 더불어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진 K-한의약의 중심이 산청임을 알리는 동시에 건강과 행복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한다. 30개국 120만 관람객을 목표로 전시·체험·학술·공연 행사 등을 준비하고 있는 산청엑스포의 키워드는 '건강'과 '힐링'이다.

산청 동의보감촌에서 즐기는 다양한 한방체험

주 행사장인 동의보감촌(231만㎡)은 10년 만에 전국 최초의 한방테마 관광지가 됐다. 2001년 고령토 폐광 지역이었던 곳이 지난 2013년 엑스포를 계기로 주제관과 주차장을 건설해 초석을 다진 것이 바탕이 됐다. 유네스코 세계기록 문화유산이자 조선시대 최고 의서 동의보감을 테마로 한 동의보감촌에는 발길 닿는 곳마다 체험행사를 마련해뒀다.

산청 동의보감촌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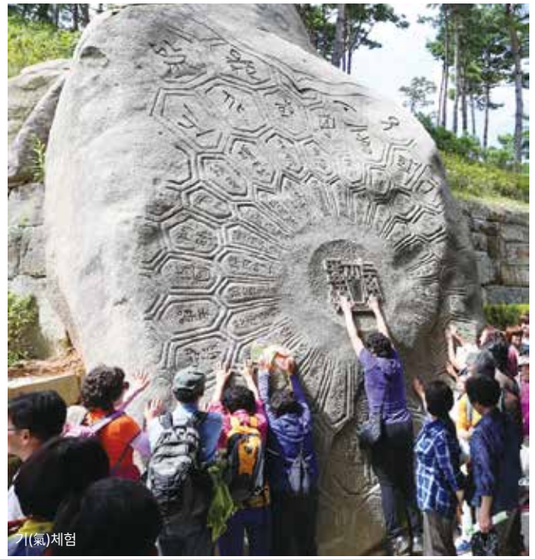


글 김주영(명예기자) **사진** 산청군

이번 엑스포는 특히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대표 프로그램은 한방기체험장에 마련된 '기(氣)체험'. '석경', '귀감석', '복석정' 삼석(三石)의 기운을 받아 승진·시험합격 등의 효과를 봤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곳이다. 여기에 단전의 기운, 산청의 기운을 받는 기체조까지 마무리하면 그야말로 만사형통~!

가족단위 엑스포 방문객을 위한 '어린이 혜민서 체험'도 있다. 호랑이 광장에 위치한 동의보감 키즈체험존을 실제 한약방처럼 꾸며 어린이들이 전통의약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약첩 싸기, 성장 혈자리 스티커 체험, 맥 짚기, 의관 의녀 복장 체험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준비했다. 체험과 더불어 다채로운 공연, 이벤트도 펼쳐진다. 주제공연인 창작 판타지 무용공연 '치유의 땅, 산청', 인기가수 콘서트는 물론, 마당극과 버스킹까지 볼거리가 가득한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에서 엑스포 한방! 생기한방! 유쾌 한방!을 통해 '인생한방'을 체험해 보자.

위치 동의보감촌(주행사장)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로555번길 45-6
산청IC축제광장(부행사장) 산청군 금서면 친환경로2605번길 22
주차 14개소, 6640면(소형차 6,470면, 대형버스 170면)
문의 055-970-8600
입장권 일반 1만 2,000원 / 청소년 1만 원 / 어린이 7,000원
일반 1만 원 / 청소년 8,000원 / 어린이 6,000원(예매·단체할인 시)


기(氣)체험

왕뜸 체험

<아이좋아> 9월호 예고편 영상 댓글 이벤트

독서의 계절,
여러분의 인생책을 추천해주세요!

최주현 님

뭘 해도 괜찮아 이남석 지음

제목처럼 뭘 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책이에요. 진로를
찾기 위해 고민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꿈을 이루는
과정의 행복함과 꿈을 찾기 위한 용기와 힘에 대해
이야기한 책인데요. 제가 고등학생 때 뭘 해야 할지
모르고 방황을 하던 때 이 책을 읽고 저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해보자고 다짐을 하게 해주었던 책이에요.

박진영 님

불편한 편의점 김호연 지음

청파동 골목 모퉁이에 자리 잡은 작은 편의점이
배경인 소설이에요.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삶의 속내와 희로애락이 따뜻하고
유머러스하게 담겨있어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는 내용이라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권민석 님

긍정적 사고방식 노먼 빈센트 필 지음

저는 항상 불평 불만이 많고 남 탓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점이 저를 더 불행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이 저를 떠나는 원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긍정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읽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자연스럽게 성공과
가까워지고 나 자신을 덜 불행하게 만든다는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정훈 님

수박수영장 안녕달 지음

〈수박수영장〉이라는 그림책을 추천해요.
수박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놀면서
서로 웃고 장난치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나눔도 배울 수 있고, 요즘 아이들에게
딱 맞는 그림책 같아요.

박정문 님

위대한 개츠비 스콧 피츠제럴드 지음

<위대한 개츠비>는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입니다. 고전이기에 이 작품이 탄생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저는 지금까지도 <위대한 개츠비>만큼 아름다운 로맨스 소설은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여인을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성공을 위해 앞만 보며 달려온 주인공은 성공을 한 이후에도 그녀를 위한 헌신을 멈추지 않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면서도 통속스럽지만 전혀 통속스럽다고 느껴지지 않는 사랑 이야기를 다루었기에
저는 지금까지도 <위대한 개츠비>를 몇 번씩 읽었습니다. 지금의 세상에 만들어지는 진리가 훗날에는 진리가 아닐 수 있어도
사랑만큼은 세월이 흘러도 불변하는 인간의 가장 고귀한 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이 소설에서 이 진리를 가장 잘 보여준 듯합니다.

고순아 님

하악하악 이외수 지음

이 책에 실린 하나의 이야기가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길거리에 놓인 돌에 걸려서 넘어진 후에
그 돌을 치운 뒤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을 가지면 모두에게 좋은 경험이지만 그냥 두고 같은 돌에 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바보나 하는 짓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특히 저와 같은 20대는
삶이 실수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수를 통해 무엇을 얻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전진해나갈 것입니다.

본 이벤트는 <아이좋아> 소식지 8월 호 예고편 영상 시청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댓글 이벤트입니다.
매달 추첨을 통해 세 분께 치킨 기프티콘을 증정합니다. 9월 호 이벤트는 8월 말 경남교육청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에 공개되는 예고편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8월 호
예고편 영상

www.gnegoki.kr 경상남도교육청

2023년 9월 호

독자퀴즈

아이좋아 경남교육 9월 호를 집중해서 읽은 독자들만 맞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잘 읽고 정답을 맞혀보세요.

1. 고교 야구 선수로는 최초로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선발된 장현석 선수는 현재 어느 학교 야구부 소속일까요?

① 마산용문고 ② 마산용마고 ③ 마산유명고 ④ 진주용마고

2.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협력하여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경남교육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은 무엇인가요?

① 사랑교육지구 ② 희망교육지구
③ 행복교육지구 ④ 함께교육지구

3. 사천용남고등학교는 2019년 교육부의 '학교단위 공간혁신 공모사업'으로 시작해 최근 '( )미래학교'로 새로운 모습을 갖췄습니다.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5글자, 주관식)

4.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미래 기술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융복합 미래 학교와 교실을 체험·전시하는 장소로 9월, 경남 의령에 개원하는 교육문화시설은 무엇일까요? (단답형)

8월 독자퀴즈 정답과 당첨자

- **정답** **1.** ② 수영 / **2.** ③ 고성 / **3.** 특성화고등학교 / **4.** 매입형 유치원 사업
- **당첨자** 창원 상일초 이준, 창원 평산초 박진서, 김해 활천초 선선빈

독자퀴즈 정답 보내실 곳

정답과 이름, 연락처, 주소, 소속(교직원 및 학생인 경우)을 기재해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께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제출 기한** 2023년 9월 20일까지
- **보내실 곳** 경상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 전자우편(gne8@hanmail.net)
- **문의** 055-278-1784

*** 유의사항 : 이름, 연락처, 주소, 소속 정보가 누락될 경우 정답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아이좋아 경남교육'을 읽고 느낀 점이나 좋았던 점 또는 소개하고 싶은 여러분의 이야기(자유 형식)를 아래로 보내주세요.

- **제출 기한** 2023년 9월 20일까지
- **보내실 곳** 경상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
- **전자우편** gne8@hanmail.net
- **전화번호** 055-278-1784

경남교육 SNS

경남교육 정책과
주요 행사를 실시간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 카카오채널 | 카카오스토리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블로그 | 아이좋아 경남교육 웹진

경남교육 아이좋아

www.gne.go.kr/KOR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시대·미래교육의 허브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이 개원합니다

생각을 담고, 배움을 즐기고, 미래를 그리는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디지로그 모험터

창의융합놀이터 - 점핑터치

미래교육배움터

경상남도교육청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